문화여성

문화매일

제 1067호 2021년 5월 31일 월요일 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문 대통령 "2023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 추진"

P4G 서울정상회의 개회사…"기후·녹색 ODA 늘려 개도국 녹색회복 지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신설"
'NDC 추가 상향·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입장도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국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인간과 지구의 공존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포용적 녹색회복의 길에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환경분야 최대 국제 회의로 국내에서 여러 지자체들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화상으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하겠다"며 "지난해 선언한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중간 목표로써 2030년의 NDC를 상향해 이미 약속드린 대로 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해외 신규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며 "국내에서는 이미 우리 정부 출범과 함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열 기를 조기에 폐지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산림 회복을 이룬 것처럼 개발도상국들과 적극 협력하고,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큰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전환을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기후·녹색 ODA를 대폭 늘려 녹색회복이 필요한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한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에 500만 달러 규모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P4G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4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신규로 공여해 창의적인 녹색성장 프로젝트가 확산되는 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도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온실가스의 감축노력은 해운과 선박 분야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며 "유엔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관련 논의가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인간이 지구와 공존하기 위한 길이지만, 혁신 기술·혁신 산업·혁신적인 일자리 등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은 '그린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며, 2050 탄소중립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느낄 때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인류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코로나 경제방역 나선 경기도, 6월 1일부터 더 강력해진 소비지원금 2탄 시행

경기도가 올 6월 1일부터 경기지역화폐 20만 원 충전으로 무려 27만 원어치를 쓸 수 있는 '소비지원금 2탄'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소비지원금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기도의회의 제안으로 시작한 경기도형 경제방역 대책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 소비진작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소비지원금 2탄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1차 소비지원금보다 더 강력해진 혜택으로 돌아왔다.

올해 소비지원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며, 추가 지급되는 소비지원금 금액이 지난해 1탄 3만 원(소비 금액의 15%)에서 5만 원(소비 금액의 25%)으로 대폭 확대됐다.

첫 번째 방식은 지역화폐 20만 원 충전 시 기본 10% 인센티브(2만 원)에, 3개월 내에 충전한 20만 원을 모두 소비할 경우 25%에 해당하는 5만 원의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생애 최초로 지역화폐를 1회 20만 원 이상 충전한 신규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소비 여부 상관없이 10% 기본 인센티브(2만 원) 외에 5만 원의 소비 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즉, 20만 원 충전으로 기본 인센티브 10%(2만 원)에 소비 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25%(5만 원)를 더해 최대 35%(7만 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받아 총 27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번 소비지원금은 예산(총 620억 원)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를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가로 지급받은 소비지원금 5만 원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한정판 지역화폐이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요건 충족자에 대해 정산작업 후 10월 26일, 11월 26일, 12월 28일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됐던 것과 달리, 지급요건(20만 원 이상 소비) 충족 즉시 실시간으로 소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소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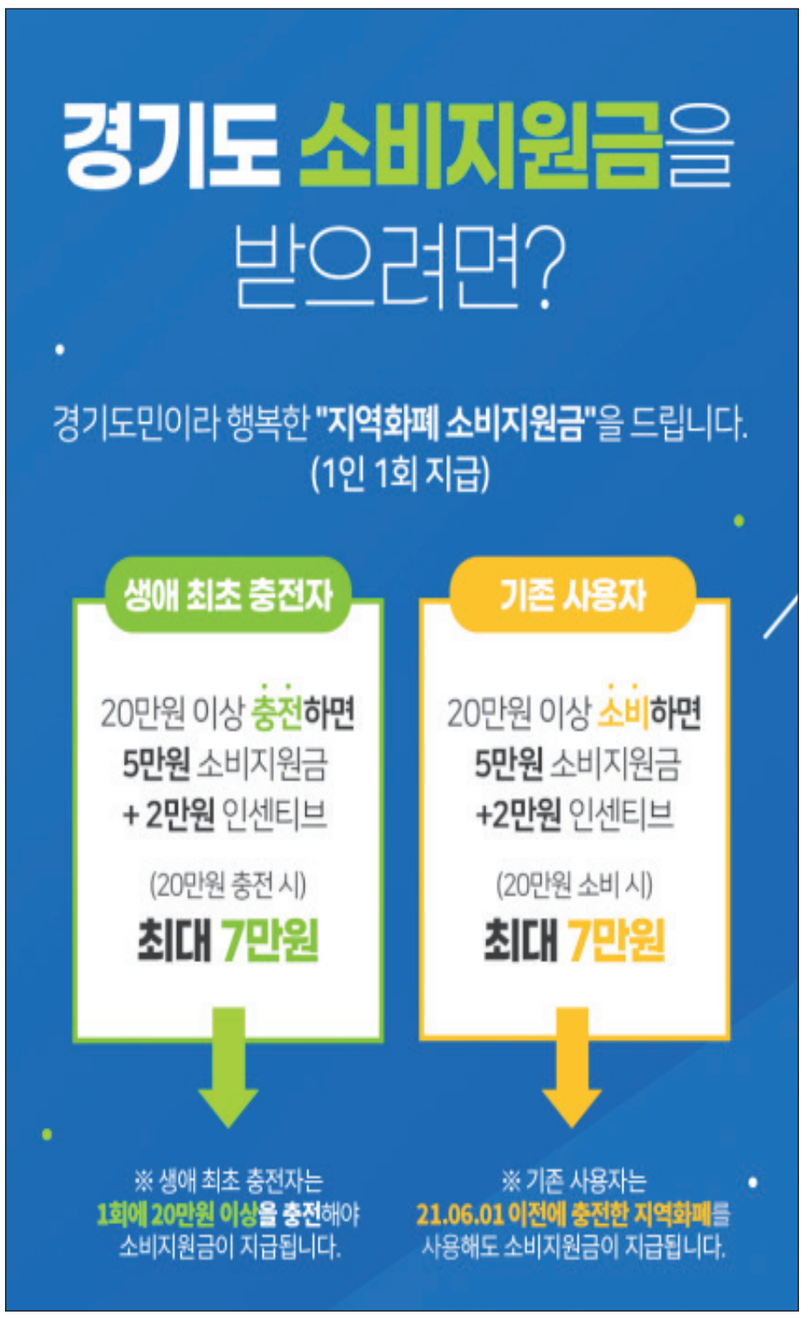
카드형 지역화폐 미사용 지역인 성남·시흥·김포는 20만 원 이상 소비 후 운영사의 지급요건 충족자 정산시간을 고려, 주 1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6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8월 예상)까지 20만 원 이상을 지역화폐로 소비해야 한다. 단, 생애최초 충전자는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20만 원을 모두 지출해도 중복 지원이 이뤄지진 않는다.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연매출 10억 이하의 매장 및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난해 1차 소비지원금에 대한 설문 조사 당시 소비지원금 참여자의 94%가 잘했다고 응답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보건방역 만큼 중요한 것이 경제방역인 만큼, 보다 강력해진 소비지원금으로 보다 많은 도민과 소상공인들께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최근수/기자



[칼럼] 흥은 곧 열정이다, 신명 나는 대한민국

어떤 일이든 타의보다 자의에 의한 성과는 더 높고 강하다. 시켜서 하는 일과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일의 차이와 같다.

조용한 사찰에 앉아 있노라면 괜스레 숙연해지고 차분해지며 나이트클럽 무대에 서면 강력한 파워의 음향과 신명 나는 박자에 저절로 어깨가 흔들거린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되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리 민족 특유의 정서가 있었으니 바로 '여흥'이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흥겹게 상무를 돌리며 즐기던 농악, 풍년을 기원하는 풍어제, 우리 고유의 민요와 가락이 생활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으니 대대로 전해오던 숨결이자 정서였다.

높은 산 언저리 달 밝은 밤에 적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강강수월래가 그랬고, 사지를 넘나들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군인에게는 목 놓아 부르던 군가가 그랬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울음으로 출생을 알리고 생일마다 축하곡을 듣다가 죽는 날 장송곡으로 생을 마친다.

우리네 삶은 말과 노래가 어우러져 문화가 되고 글이 있어 역사가 된다. 그만큼 노래는 우리 삶의 흥이자 신명이며 열정의 원천이다.

그저 흥얼거리던 노랫말들이 전해지고 계승·발전되어 후손들에게는 더 없는 유산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신나는 일, 흥이 나는 일, 열정이 저절로 생기는 일은 지치지도 않고 무한대로 발전하는 것이며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

흥이란 대단한 정치인들의 정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저 현실에 맞는 흥얼거림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노래다.

그래선지 1990년 한국에 입성한 노래방 문화는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호황을 누리던 업종이었다.

최소한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저냥 먹고살 수 있었는데 집합금지 명령 이후 찬바람이 불었다. 뿐인가 공연장도, 가수도, 관련 업종의 모든 스탭진들까지 죄다 냉동상태다.

지난 28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 극장에서 열린 제27회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의 시상식장은 그 어떤 행사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대상을 받은 가수 조항조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약 200명의 수상자들이 영예의 시상식에 참석했다.

3층까지 꾸며진 객석은 텅 비어 있었고 화려한 무대에는 나 홀로 공연에 많은 가수들과 수상자들이 무관중 공연을 펼쳤다.

공연의 3대 요소인 무대, 배우, 관객 중 하나가 빠진 것인데 1년 반을 접어들면서 이제 제법 익숙해진 모습이다.

필자가 수상자들 중 약 30여 명의 유명 가수와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구동성 들은 말이 바로 희망과 용기였다.

한결같이 힘내, 괜찮아 등 희망적인 가사를 담은 신곡을 발표했다는 말과 함께 수상의 소감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무대에 서지 못 하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현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다.

현재 국내 무명 가수는 약 8만 명, 음반업계나 기타 공연 관련 종사자들까지 합하면 대략 40만 여 명이 재난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데 노래방 자영업자나 제3차 종사자들을 제외한 숫자니 실제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의 아픔은 예상을 초과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흥을 다시 찾는 건 마치 용광로에 불이 꺼지면 다시 피우기 어렵듯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의 감성이 동반되는 흥은 어떤 방식이든 불씨를 살려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시상식을 준비한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의 시상식은 상징적인 행사라 볼 수 있다.

국내 많은 가수들과 연예인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그 명맥이나 연혁도 상당하지만 무엇보다 단체를 이끌어온 수장의 열정이다.

어떤 조직이든 잘 되면 조직원의 협력이고 못 되면 지도자의 부족함이라 말하는 석현 이사장의 덕담에서 알 수 있듯, 올해 80의 나이에도 청년 못지않은 열정으로 시상식을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국민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부르는 노래, 생활 속에 깊숙이 베여 있는 우리 가요를 총 지휘하며 28년째 협회를 이끌어온 그의 열정은 그 많은 정치인들이 채워주지 못한 국민들의 흥과 신명을 지켜온 주인공이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특정인 조명보다는 전국 각지에서 나름대로 혼신의 힘으로 자신의 열정을 표출하려는 무명 가수를 폭넓게 포용하려는 배려가 그의 마인드다.

때로 시기·질투와 사리사욕으로 흠집 내려는 특정인도 있지만 이 또한 필요한 불협화음으로 여기며 오직 협회의 발전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가져온 선물이 오늘의 시상식이라고 한다.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흥이 나고 신명 나게 살아야 열정을 살릴 수 있으며 그 원동력에 신바람 나는 희망의 노래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노래의 불씨는 남겨야 한다.

정작 필요한 예산이란 생색내는 돈이 아니라 코로나19 종식 이후 다시 불을 피워야 할 문화예술의 소중한 재원이 되어야 한다.

조직의 신뢰로 4년 짜리 국회의원 7선이나 해야 할 28년 동안 이사장을 역임한 석현(본명 윤승문)이사장.

정치가 한 번씩 바뀔 때마다 국민들에게 분노를 주는 동안 감동과 웃음을 선물했던 단체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의 뜨거운 박수가 아깝지 않다. 이제 어떤 예산이 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스스로 말하지 못 하는 침묵의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

덕암/김균식

대전 동구, 현충원 태극기 꽂기 봉사활동 '구슬땀'

더불어민주당 '심장부' 광주서 민주평화광장 출범

6월 1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도별 조직 발족

'민주·평화',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광주 민주평화광장'이 6월 1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광주 민주평화광장'은 민생중심 정치혁신과 평화·공정 실현을 위해 출범한 플랫폼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는다. 또 광주지역 각계각층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소상공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정수민 전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이 고문단을 맡고, 정영일 전 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이 공동대표로 함께하며, 조석호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등이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평화광장' 공동 상임대표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하며, 이해식 의원, 이동주 의원, 이수진 의원, 박홍근 의원 등 민주평화광장 중앙대표단 및 주철현 전남 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가 자리를 함께한다.

'광주 민주평화광장'은 내년 20대 대선에서 시대정신에 발맞춰 개혁적이고 현실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할 계획이다.

특히 ■권력기관과 언론 등에 대한 중단없는 개혁 실현 ■경제·사회적 민주화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 ■지역균형발전 달성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질서 확립 ■시대적 과제인 민주평화세력의 재집권 노력 ■중단없는 민주개혁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번영 등을 위해 활동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평화광장'이 출범했다. 이후 전국 시도 권역별 민주평화광장을 출범하기로 한 데 따라 이날 광주 민주평화광장이 공식 발족한 것이다.

광주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의 마음가짐으로 '광주 민주평화광장'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활용계획 수립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민 의견이 반영된 폐교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 건의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오크우드 프리미어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제4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법령(제도) 개선 및 지역발전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주요 현안 보고(6건), 시·도의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제출된 상정안건(29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시·도의회 현안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한종 의장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 등으로 늘어나는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 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교는 그 지역의 역사가 깃든 소중한 유산으로 폐교재산이 지역주민 의사에 따라 활용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법령 개선과 지역발전 현안에 대한 상정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채택된 건의문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임시회를 주재한 김한종 전국시도의회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내년 시행을 앞두고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적 준비로 모든 시도의회가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올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후속조치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영안/기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조직개편 논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제도개선준비단'(단장 이정철 의원)이 지난 28일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의회사무국 조직 체계 개선 및 효율적인 인사 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의회제도개선준비단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조직개편 및 확대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입법정책팀신설 ▲과장직제 도입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북구의회는 지난 3월 의회제도개선준비단을 발족시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차원의 후속조치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5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집중 논의를 해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달 4일에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전략과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정철 단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 내 사무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의회사무국의 조직·직급 체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사무직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이 확보된다면 지방의원이 바라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단장은 "아직 행정안전부의 세부 지침이 없어 사무국 직원들의 의회 잔류 및 집행부 전입에 대한 고민이 많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내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이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협업으로 꽃피운 다시봄 공공실버주택, 주거에 복지를 더하다.

협업의 시대, 손을 잡으면 군민이 행복해집니다.

고성군이 경남에서 처음으로 공급한 공공실버주택은 고성군, LH, 주택관리공단의 기관 간 협업과 군청 내 부서 간 협업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고성군과 LH경남본부가 공공실버주택(100가구)과 고성서외행복주택(200가구) 관리사무소 인력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동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3분의 1 정도 절감해 협업을 통한 주거복지 구축의 첫걸음이란 평가이다.

이외에도 공공실버주택에는 입주어르신과 지역어르신을 위한 특별함이 있다.

공공실버주택 2층에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이 입주해 이·미용실, 빨래방, 경로당, 주민자치 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건강돌봄, 주민강좌, 정서강좌 등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화재, 재해 등으로 임시거처가 긴급히 필요한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임시주택 2호도 관리한다.

같은 층에 입주한 고성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의 어르신들이 일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5월 26일에는 공공실버주택 내 정담카페2(실버카페)와 정담식당(실버식당)도 열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공동체를 조성하는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도 6월 1일 개소를 앞두고 있다.

고성 공공실버주택은 인근 주민까지 아우르는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허브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어르신센터를 개소하여 의료기능까지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별함은 고성군이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공공실버주택을 완공한 이후에도 건축개발과를 중심으로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와 협업을 통해 주민이 행복하고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한 성과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기관별, 부서별 추진하는 사업이 협업으로 연결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이 많다"며 "고성군의 공공실버주택 협업모델은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우수한 사례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실버주택사업은 고성군이 고령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17년 국토부의 '공공실버주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일원 연면적 6,950㎡에 1개동, 지상 13층 규모로 2019년 착공하여 2020년 11월에 완공했다.

최광용/기자

김남국 의원, 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 진행

김 의원 "의견 수렴 결과를 더불어민주당과 안산시에 적극 건의하겠다"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은 28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영철)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 이영철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국회에서 심사중인 손실보상법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말씀한 내용을 안산시에도 적극 건의하겠다"면서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민심을 청취하는 '국민 소통-민심 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 당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남국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동수·나정숙 안산시의원도 함께 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길거리 주민 소통의 날을 비롯해 청년·소상공인·지역 주민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민생 소통 행보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최정부/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홍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류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대표전화 : 1899-965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경북 김천혁신도시, 재도약의 청사진 그리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로 미래전략 구상

경북김천혁신도시는 2007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3월 경북드림밸리로 출범하였다. 농소·남면 일원 3,812,000㎡(약115만평) 토지를 율곡동으로 재편하여, 12개 이전공공기관, 5,561명이 이전을 완료하고 8,865세대, 인구 22,621명(2021.4 기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김천혁신도시는 공기업 3개소 외에 조직 특성상 그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정부기관이 7곳, 대국민 법률서비스 등 공익 기능의 기타 공공기관 2곳이 위치하여, 관련 사업체 유치나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에 불리한 점을 안고 시작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더하여 출범 이후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김천 혁신도시는 이에 대한 돌파구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로 미래 전략을 설정하고, 재도약의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먼저, 민선 7기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의 기치 하에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은 최근 착공한 부영2차 아파트 외에는 모두 당초 계획대로 건립되었고, 신규 정주여건 개선 사업으로 운남중학교 개교(2021.3),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장어린이집 신설(2021.11예정), 복합혁신문화센터 신축(청소년 문화시설, 도서관 등, 2022년 예정), 가족(어린이)특화 SOC사업(실내 복합놀이시설 건립, 2022년 예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시설 및 의료, 편의시설 분야에서도 2020년 김천경찰서 이전 및 율곡 119안전센터 신설로 안전성을 확보했고, KTX 김천구미역 인근 17,882㎡ 부지에 225억 원을 투자하는 준 종합병원이(10과목, 178병상, 2022년 예정) 개원하며, 대형마트·금융시설 등이 위치한 구도심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청-혁신도시 연결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다.

[첨단교통특화도시 육성]

김천혁신도시의 강점은 단연 교통의 편의성에 있다.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도시 내 KTX역사가 들어서 있어, 전국 어디든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인근 IC를 통해 중부내륙 및 경부고속도로에 바로 진입할 수 있어 각종 신산업 유치와 물류, 유통, 교육사업 등에 유리하며, 대표적인 도로·교통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가 이전하여 관련 협력사업 추진에 용이하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려낸 김천혁신도시 새 도약의 청사진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어 먼저, 첨단 교통특화도시 및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

지난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는 김천혁신도시를 '첨단미래교통안전 클러스터'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투자를 실시할 계획으로, 김천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산업단지 전체가 국가혁신 융복합 단지로 지정되어 2028년까지 국·도비 약 550억 원을 투입, 전기차 5대 부품을 개발하고 상용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는 튜닝 관련 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406,637㎡ 부지에 54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튜닝카 성능안전시험센터는 53,000㎡부지에 405억원을 투입, 관련 인증 및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거점 드론실기시험장은 개령면 덕촌리 일원에 58,000㎡ 규모로 297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될 예정으로, 비가시권 드론조종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 실기시험 및 관련 교육을 맡게 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최근 급증한 온라인 생활물류 수요증가에 따른 통합물류관리 서비스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남부권 물류거점 도시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지난 2020년 11월 18일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김천시가 '스마트 물류사업 추진' MOU를 체결하고 김천1일반산업단지 총 1만1000㎡ 부지에 총사업비 177억 원(국비 45억 원 포함)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1단계 스마트 물류 테스트베드 구축, 2028년까지 2단계 물류정보센터 및 3단계 지능형 물류센터 구축 등을 통해 스마트 물류 선도도시 육성 및 지자체 + 공공기관 지역 발전사업의 선도적 협업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며, 최근 산업단지에 8만8천㎡, 1000억원 규모로 유치한 쿠팡의 첨단물류센터와의 시너지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명품교육특화도시 육성]

김천혁신도시의 두 번째 미래전략 목표는'명품교육특화도시 조성'이다. 이미 김천혁신도시에는 조달교육원, 국제종자생명교육원 등이 들어서 있어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이전기관 연계 교육센터를 적극 유치하여 연간 약 5만 명 이상의 교육생이 방문하는 명품 교육특화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교육원은 2014년 3월 김천에 자리 잡았으며, 전국의 조달담당자 및 민간에 물품, 서비스 구매, 공사계약관리, 정부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등의 교육 사업으로 연간 1만 여명의 교육생을 유치하고 있다.

국제종자생명교육원은 차세대 종자·생명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위해 2019년 6월 개원하였으며, 10,475㎡부지에 238억원이 투입되어 연간 약 2,400여명의 교육생이 방문하고 있다.

2020년 8월 개청한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는 8,969㎡ 부지에, 23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되었으며, 첨단 자동차의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통해 연간 1만명 이상의 교육생이 방문하는 한편, 첨단 안전장치 검사기술 연구, 수소버스 검사기술 연구 등의 R&D 과제도 수행하고 있다.

'경북 ICT이노베이션 콤플렉스'는 총96억 원을 투입하여 혁신도시 내 건물 829㎡를 임차하고,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융합 등 기술교육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 창업 및 재직자 교육으로 2023년까지 매년 700여명의 교육생이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20년 12월 김천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진주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흡수·합병되면서 국토안전관리원이 출범했고, 김천혁신도시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사 개소 및 교육센터의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클러스터 부지 분양율 제고, 교육센터 신축 및 연간 교육생 6천명 이상 방문 등으로 인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미래비전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상생화합]

김천혁신도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정착을 장려하고, 적극적인 협력사업 추진 및 교류를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제 김천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민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미래 전략산업을 고심하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상생과 화합을 통한 하나됨을 강조하는 한편,

"2022년 양대 선거를 전후하여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비한 유치전략 마련에도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자."며 다가올 화두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6년 3월 준공이후 5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김천혁신도시가 민선 7기를 거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든든한 우방인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 시즌2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시민 모두의 협조와 응원이 필요할 것이다.

김세기/기자

공주시 김정섭 시장, 송선 • 동현 신도시는 충남의 새로운 심장

'동현지구 스마트창조도시' 건설과 연계 적극 지원 의지 피력

공주시 김정섭 시장은 '공주 송선·동현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을 세종·대전시 등 인접 광역도시권과 연계한 공주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시장은 2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특별브리핑을 열고 하루 전 충청남도·충남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지원 및 추진 방향을 상세히 제시했다.

'송선·동현 신도시'는 충남개발공사가 송선교차로에서 동공주(서세종)IC까지 이르는 94만㎡의 부지에 2027년까지 7,241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거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6,367호, 주상복합이 526호, 단독주택이 348호가 들어온다. 이중 분양은 4,894호, 임대는 1,473호가 될 전망이다. 예상 사업비 5,577억 원은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어서 시는 재원 부담이 전혀 없다.

신도시에는 수용 계획인구가 1만6,799명에 이르기 때문에 교육시설도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들어서고, 공공업무시설도 2만4천㎡ 규모로 조성된다.

면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한 공주 월송지구의 약 2배에 이르며, 공주시의 총주택수 45,270호의 16%에 달하는 공주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될 전망이다.

김 시장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공주시는 행정구역 축소와 지속적 인구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이번 사업의 성공에 지역의 미래가 달렸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은 세종·대전 등 주변도시와 상생발전은 물론 충남 내륙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케 함으로써 공주시의 위상을 재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주시가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동현지구 스마트창조도시'와 연계해 공주의 새로운 성장벨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현지구 스마트창조도시는 시가 동공주IC 맞은편에 13만㎡ 부지를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청사 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번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되어 매우 긍정적인 승수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이번 사업이 2027년까지 성공적으로 완수되려면 시가 각종 인허가 지원은 물론 개발지역 예정지 관리, 공공기관 유치 및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해야 하는 만큼 충남도 및 충남개발공사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당장 개발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바람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어 세종시의 성장과 연계한 미래 프로젝트 발굴과 함께 원도심 및 농촌지역과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후속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존관 부시장을 단장으로 (가칭)도시개발사업지원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신도시의 입주 및 성공 여건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4년 제2경부고속도로(포천-세종)가 완공되면 사업지구의 한 부분이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1시간 48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단축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주시내버스터미널까지는 BRT(간선급행버스) 노선이 2025년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직장과 주거시설이 함께 할 수 있는 직주근접형의 주거단지에 수도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지면, 공주시는 인구 유출도시에서 유입도시로 변모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신도시 건설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메가시티 논의에 공주시가 실질적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사업은 '행정수도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공주의 미래가치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충남도 및 충남개발공사와 긴밀한 협력·지원체계를 가동하면서 공주의 새로운 미래를 시민들과 함께 설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신동헌 광주시장, 교통대책 호소, '경강선 연장(삼안선),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건의문 제출

광주시가 경강선 연장(삼안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민들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7일 신동헌 광주시장은 백군기 용인시장과 국회를 찾아, 용인, 안성시와 함께 경강선 연장(삼안선) 건설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으로 선정된 경강선 연장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강선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함께 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경강선 연장(광주~용인·안성)이 신규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추가검토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대책촉구를 한 것이다.

광주시는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교통인프라가 매우 부족하고 시민들이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불편 겪고 있다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여기에 노선을 단축하면 국가의 사업비 절감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제출해 국토교통부 및 국회 제출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신동헌 시장은 "서울과 밀접해 있음에도 교통망이 열악한 것은 공평하지 못한 처사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내버려둘 수 없다"며 "경강선 연장(삼안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3개 지자체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의지를 표명했다.

광주시는 최근 3년 간 평균 4.62% 인구증가 도시며 2021년 인구가 40만에 달해 대중교통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통난에 시달리는 광주 시민들은 지역별로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하며 삼안선이 신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경강선 연장되면 고질적인 교통밀집 지역인 태전,고산지구 일대에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앞서 3개 지자체는 국가의 사업비 절감과 경제성 더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당초 건의 노선 보다 17km를 단축해 광주 삼동에서 용인 남사까지 연결해 '동탄~안선~청주공항선'과 환승할 수 있는 수정(안)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수/기자

군포시 한대희 시장,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와 소통간담회

한대희 군포시장은 5월 27일 저녁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이익 우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대희 시장은 "산업화·도시화 문제를 지역공동체의 협동정신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의 역할은 무척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며, "작은 동아리의 활동이 밑거름이 돼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따뜻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은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제3섹터의 영역이 중요하고 각각의 영역과 영역을 연결해야 한다.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 노력과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민간분야의 창의성과 유연한 사고 등이 행정에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회원들은, 동아리 활동 공간 마련의 어려움과 청년정책 지원이 끝난 후 자립하기 힘든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는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군포시민들로 구성된 학습 모임으로,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군포시가 소통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장과의 소통의 장' 프로그램 차원에서 이뤄졌다.

원종균/기자

용산구, 2021년 풍수해 종합대책 추진

"안전 1등구 용산의 명예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풍수해 대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6일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린 '2021년 풍수해 대비 종합훈련'에서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이같이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풍수해 안전 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구는 지난 15일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재대본)를 구성했다. 상황발생 시 28개 부서(기관) 13개 실무반이 상황총괄, 재난홍보, 행정지원, 교통대책, 의료방역, 응급복구 등 대응에 나선다.

주의(호우주의보, 태풍주의보, 강풍주의보), 경계(호우경보, 홍수주의보, 태풍경보, 강풍경보), 심각(홍수경보, 이재민 다수 발생) 단계별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필요시 현장지휘소도 설치·운영한다.

지역 내 침수 취약가구(142곳)에 대해서는 돌봄공무원(142명)을 배치, 1:1 밀착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지하 주택에는 건축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물막이판, 옥내 역지변, 수중펌프 등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

또 태풍, 홍수, 강풍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풍수해 보험 가입도 안내하고 있다. 판매 보험사는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 5곳이며 가입기간은 1~3년, 정부가 보험료 일부(55%~92%)를 지원한다.

지난 3월 지역 내 유수지(3곳), 빗물저류조(1곳)를 시작으로 구는 재난취약시설(12곳), 대형공사장(3곳), 급경사지(31곳), 도로시설(25곳), 빗물펌프장(13곳), 전통시장(4곳) 등 점검도 이어오고 있다.

점검 내용은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붕괴 등 위험요인과 관련 안전법규 위반사항이다.

아울러 구는 군부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11개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 유사시 신속한 현장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내 기상정보, 수위, 강우량, 대피소 등 현황은 '용산구 스마트 수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환경부 등에 산재된 정보를 한곳으로 모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본격적인 우기에 앞서 각 가정에서도 배수구를 정비하는 등 조치에 나서달라"며 "주택, 상가 앞에 있는 빗물받이에 덮개를 덮어놓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일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침수 취약지역에 비치한 모래주머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양수기, 수중펌프 같은 장비는 필요할 때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빌려 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만식/기자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 부평구 보훈단체 초청 문화예술 공연 개최

부평구노인복지관(관장:최민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부평구 보훈단체 9개 단체회원 200여명을 초청하여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한다.

부평구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가 주관·주최하고 노인회지회 소속 노인자원봉사클럽 9개 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사하며 송도 복합문화공간 케이슨 24에서 후원을 맡는다.

공연은, 보훈단체 회원을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보훈하는 시간을 통해 富유하고 平온한 富平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취지가 있다.행사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10회에 걸쳐 복지관 5층 대강당에서 1회마다 20명 내·외로 보훈단체 회원을 초청하여 열릴 예정이다.

최민수 관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위로를 드리기 위해 노인회지회와 협업으로 행사를 마련하였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예우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공연단과 참석인원을 대상으로 발열체크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공연을 진행하고, 공연 후에는 방역을 실시 할 계획이다.

케이슨 24 허승량 대표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보훈단체 어르신께 희망과 응원을 드리기 위해 빵과 마스크 등을 후원하게 되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고 전했다.

복지관측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문화사회 공헌활동과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유하고 평온한 부평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전순희/기자

서대문구, MZ세대의 아이디어, 정책이 된다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주제로 청년·청소년들의 정책 아이디어 공모

서대문구가 MZ세대 청년과 청소년들의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는 구정 전반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는 '일반 분야'와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는 '특정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 분야'로는 구민 생활 편익 증진, 행정 운영 능률화, 예산 절감, 세입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정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특정 분야'의 세부 항목은 ▲빈곤 종식 ▲기아 해결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태계 ▲육상생태계 ▲평화, 정의와 강력한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 등이다.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 직장, 단체에 속한 만 15~34세의 청년과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은 물론, 5인 이내 팀으로도 응모할 수 있어 혼자 완성하기 어려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도전해도 된다.

희망자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제안서를 내려 받아 제목,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을 써넣은 뒤 6월 25일까지 이메일로 내면 된다.

구는 창의성, 효과성, 실현가능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우수, 장려를 1명(팀)씩 선정하고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 3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사소해 보이는 아이디어도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 MZ세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상순/기자

남동구, 연이은'캐릭터 소화기함'개발로 시너지 효과 낸다

인천시 남동구가 캐릭터 소화기함을 잇따라 개발하며 화재대응과 안전문화 확산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구는 소방관 캐릭터를 모티브로 한 보이는 캐릭터 소화기함을 개발, 다음달 1일부터 전통시장과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 30곳에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달 소방차 모형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우리 동네 소방함을 개발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화재취약지역 10곳에 설치·운영 중이다.

기존의 정형화된 사각형 디자인에서 벗어난 캐릭터 소화기함은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간석동 주민 강성자(61)씨는 "캐릭터 형태의 소화기함은 눈에 확 들어와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 자연스럽게 소화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캐릭터 소화기함'을 브랜드 네이밍(naming)과 다양한 캐릭터 개발 등을 통해 남동구 대표 안전 인프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강호 구청장은"잇따른 캐릭터 소화기함 개발로 화재사고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재난안전 인프라를 개발해 안전도시 남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종로구, 어린이용 한(韓)문화 교재 제작 '종로에서 즐기는 우리 문화 여행'

종로구는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어린이용 교육 교재 '종로에서 즐기는 우리 문화 여행'을 제작·배부하였다.

이번 교재 제작은 종로구가 민선5기를 시작으로 10여 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한(韓)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한글 ▲한복 ▲한옥 ▲한식▲ 한지 ▲우리소리 ▲우리춤 ▲우리놀이 등 8개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를 한권에 수록해 어린이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들도 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종로에서 즐기는 우리 문화 여행'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려는 목적에서 '종루 선생님', '범이', '고미'라는 친근한 인물들을 등장시켰다. 이들이 하루 동안 종로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여행 이야기 형태로 책자를 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아울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단어와 그림을 삽입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개념, 특징, 종류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했다. 관내 한문화 시설과 종로한복축제 등 종로를 대표하는 관련 행사도 소개하고 있다.

교재는 올해 4월 관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공공도서관, 동주민센터 마을문고, 지역아동센터 및 키움센터 등에 배부를 마친 상태다. 5월부터는 전통문화 교육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위주로 도서를 전달 중이다.

한편 종로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1번지로 민선5기부터 한(韓)문화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전통문화가 고루하고 진부하다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 얼마든지 즐겁고 새로울 수 있다는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한국문화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그 예로 한복의 대중화를 위한 '종로한복축제' 개최와 한복체험관 개관, 전통정자 축조와 한옥 부재의 체계적 관리를 도울 자재은행 운영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 3월에는 종로와 한글의 오랜 관계성에 주목하고 지난 한 해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한글 가온 종로' 책자를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김영종 구청장은 "종로구는 청와대, 경복궁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명소와 함께 근현대 유적이 풍부한 가장 한국적인 도시"임을 강조하며 "조상의 지혜와 정신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지키고 현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종로에서 즐기는 우리 문화 여행'을 읽으며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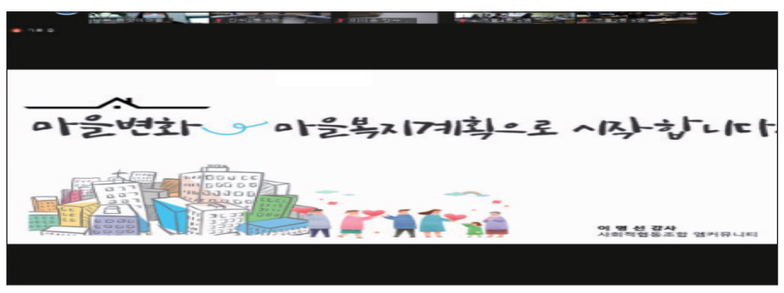
최광수/기자

남동구,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리더 및 실무자 화상교육 실시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27일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리더 및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가치 회복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담당 공무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회적협동조합 M커뮤니티 이명선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을 위한 지역리더의 역할, 민관협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주민주도, 주민조직화 과정 경험 등에 대해 강의했다.



구는 이번 교육이 주민 중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무자의 역량을 높여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은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소규모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복지계획을 수립·실행하는 것으로 남동구는 지난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20개 동 단위 마을복지계획추진단을 모집했다.

최재은/기자

서울특별시, 치매환자 돕는 16만명 알리는 '기억친구 UCC 공모전' 참여하세요!

'기억친구'에 관심있는 개인 또는 5인 이내 단체 참여 가능, e-메일로 접수

서울특별시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치매환자를 돕는 '기억친구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천만시민 기억친구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는 치매 걱정 없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따뜻하게 도와주는 '기억친구'와 '기억친구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 4월 기준 '기억친구'는 161,155명, '기억친구리더'는 5,689명이 참여하고 있다.

기억친구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1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될 수 있으며, 가족, 친구 및 이웃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기억친구리더'는 중학생 이상 서울시민으로 5시간의 기억친구리더 양성교육을 받은 후 활동할 수 있다. 연간 1회 이상 기억친구 양성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홍보 등의 활동을 한다.

시는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UCC 공모전을 열어 시민들이 치매 걱정 없는 서울시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 작품을 통해 기억친구와 기억친구리더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번 기억친구 UCC 공모전은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5인 이내 단체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소개 △기억친구리더 홍보 △기억친구, 기억친구리더 활동 소개 △천만시민 기억친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내용이며, 광고, 브이로그(V-log), 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의 영상을 2~3분 이내로 제작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은 수상 분야도 확대해 장려상을 신설하고 총 9개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9월 중 심사를 거쳐 수상자에게 대상(1편) 100만 원, 최우수(1편) 50만 원, 우수상(2편) 각 30만 원, 장려상(5편) 각 1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기억친구 공모전 수상작은 치매인식개선 행사와 홍보물,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유튜브, SNS 등에 천만시민 기억친구 프로젝트 홍보 콘텐츠로 반영·활용될 예정이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영등포구, 자녀에게 '한뼘' 더 다가가기 • • • 스마트폰 자녀지도 웹앱 운영

영등포구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기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ON맘 부모안전지원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ON맘 부모안전지원단'은 지역 내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13명으로 구성된 위기청소년 예방·지원 단체로, 청소년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온·오프라인 성장 환경을 구축하는 활동을 펼친다.

'ON맘 부모안전지원단'의 이름 또한 마음의 불을 켜고(ON) 온 마음을 다해 청소년이 안전한 영등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담아 지어졌다.

구는 지난 3~4월 지원단으로 활동할 13명의 학부모를 모집하고, 5월 13일 여성소통문화공간인 Hey YDP에서 위촉장을 전달했다.

지원단은 앞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아웃리치 활동 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 사회적 현안·이슈에 관한 논의, ▲정책 건의와 함께 ▲부모-자녀 관계 개선을 주제로 한 6회기의 부모역량강화 교육, ▲참여 학부모의 심신 안정 및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행복힐링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영등포구에서 자체개발한 스마트폰 자녀지도 대백과사전인 웹앱(Web App)1) '한뼘'의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한뼘'은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시간도 점점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이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위험을 인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해 제작한 국내 최초의 다국어 자녀지도 웹앱이다.

'한뼘'은 스마트폰 기본, 게임, 유튜브 및 인터넷 동영상, 웹툰 등의 카테고리를 분류해 각 분야의 위험요소, 문화를 이해하고 지도 방법, 추천 자료를 보여주어, 부모와 청소년이 스마트미디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소통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의 특성을 반영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총 3개의 버전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환경이라면 QR코드 태그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어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ON맘 부모안전지원단은 가까이 지내는 학부모들에게 '한뼘'을 홍보하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으로 보완·개발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모안전지원단으로 활동하길 원하는 관내 학부모는 영등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ON맘 부모안전지원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의 공감대 형성과 소통의 가교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유익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와 청소년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꾸려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구로구, 온라인으로 즐기는 Book적 Book적 책 축제

29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GUROBOOK'으로 가족 독서 골든벨 • 퀴즈 등 진행

구로구가 온라인으로 '구로 책 축제'를 개최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에게 책을 통한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로 책 축제'를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9회째를 맞이한 '구로 책 축제'는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2013년에 시작했다. 책을 통해 꿈과 희망을 펼쳐 나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책 읽는 구로! 꿈꾸는 구민!'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축제는 29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GUROBOOK'을 통해 이성구청장의 축하인사와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이어 독서퀴즈 대회 '가족 독서 골든벨'이 진행된다.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팀을 이뤄 서바이벌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 2021년 '구로의 책' 중 유아·아동·청소년 분야 3권과 구립도서관 관련 문제를 출제한다. 총 50팀이 온라인 플랫폼 ZOOM(줌)을 통해 참여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6팀에는 메달과 도서상품권이 지급된다.

참가자 외에도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상품이 증정되는 퀴즈 이벤트도 마련된다.

한편 본 축제에 앞서 다양한 독서 대회가 진행됐다.

가족 2인 이상이 같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하는 '가족 독후감 쓰기 대회'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열려 7팀을 선발해 21일 지혜의 등대 홈페이지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는 일상 속 책 읽는 모습이나 도서관 응원 문구를 담은 사진을 대상으로 '도서관 챌린지 독서사진공모전'을 실시해 지혜의 등대 홈페이지 투표로 12점을 선정했다.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도서관 원정대'도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진행했다. '도서관 원정대'는 구립도서관, 서점 등 관내 지정장소 18곳 중 5곳 이상을 방문해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완주자를 대상으로 축제 당일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는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책 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책과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광진구, 청소년 진로 탐색 돕는 '광진 대학생 멘토단' 모집

광진구가 6월 4일까지 지역 내 중·고등학생에게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줄 '광진 대학생 멘토단'을 모집한다.대학생 멘토단은 지역의 교육 여건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관내 대학생을 멘토로 양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전공·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모집대상은 광진구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30명으로, 활동 시 활동실비가 지원되며 우수 멘토에게는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멘토단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6월 중 발대식을 가진 후 멘토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멘토스쿨 교육과정을 수강하게 된다.

이어서 오는 12월까지 지역 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공설명회', '온라인 전공 상담' 등 활동을 진행하며,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전공 및 진로선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신청은 4일까지 지원신청서, 재학증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구비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대학생 멘토단을 통해 진로 탐색 과정을 거친 대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로를 고민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영종국제도시 잇는 GTX-D 인천 원안(Y자 노선) 촉구… 인천 중구, 온라인 서명 운동 돌입

인천 중구는 5월 27일부터 6월 13일까지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GTX-D 인천 원안(Y자 노선)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GTX-D 인천 원안(Y자 노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지역주민의 염원을 모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인천광역시에 전달함으로써 적극적인 검토를 이끌고자 온라인 서명운동을 결정했다.

온라인 서명은 지역 제한 없이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중구 홈페이지의 서명 팝업창 이미지를 클릭한 뒤 이름과 연락처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를 시점으로 부천종합운동장 및 사당, 강남을 거쳐 하남시청을 종점으로 하는 연장 110.27km, 18개 정거장의 Y자형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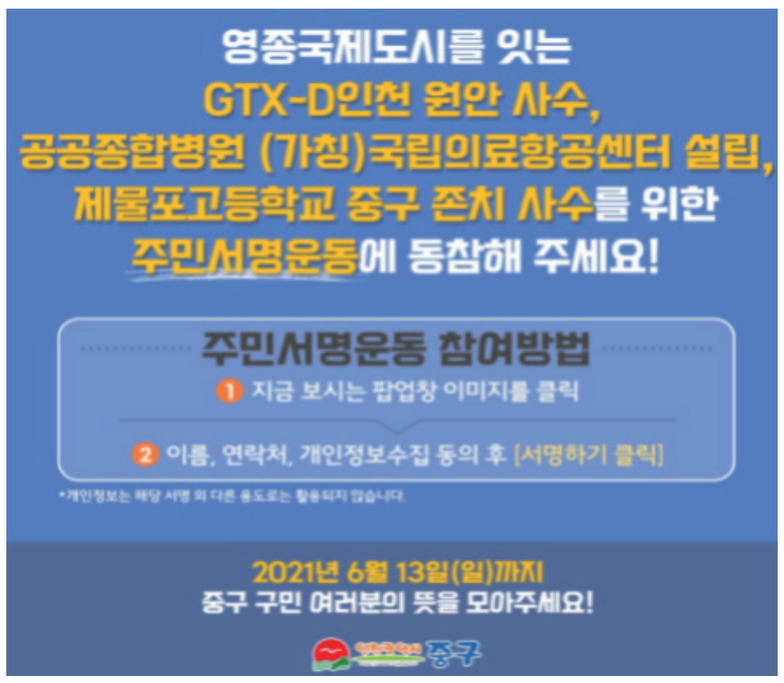
하지만 지난달 2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는 인천시가 요청한 GTX-D Y자 노선은 반영되지 않았다.

계획안 반영시 인천국제공항 여객 1억 명 시대에 대비한 연계 교통 확보 및 영종국제도시의 열악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기대된다.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종합병원 (가칭)국립항공의료센터 설립 ▲제물포고등학교 중구 존치 사수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GTX-D 인천 원안(Y자 노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노선 반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온라인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김포시, 장마 대비 노지고추 다수확 위한 개화기 관리 철저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노지고추 개화기를 맞아 초기 다수확을 위한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3월하순부터 5월하순까지 거의 매주 비가 내려 노지 작물 파종 및 정식을 위한 토양중 물은 적당한 상황이다. 반면에 5월하순임에도 불구하고 15℃이하로 낮은 기온으로 노지고추의 활착이 평년보다 다소 저조한 곳이 많은 편이다. 작년에는년 6월 25일후 장마가 시작되어 9월상순까지 약 65일간 장마가 계속되어 착과기 개화불량 및 탄저병 다발생으로 수확량이 대폭 감소했었다.

3월부터 5월말 현재까지 강수량을 보면 작년은 133.5㎜인 반면, 올해는 357.5㎜로 약2.7배 많은 양이 내려, 해마다 문제가 되었던 봄가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봄철 잦은 강우 상황을 볼 때, 올 여름 장마철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장마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지고추 생육저조한 곳 요소 엽면시비 및 관주처리,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적기 1차 웃거름 주기, 지줏대 빨리 세워서 강풍에 부럼짐 예방, 바이러스 의심주 조기 제거, 방아다리 아래 측지 2개 키워서 조기 착과 유도(이때, 웃거름 다소 많이 자주 주기 등 초세 관리), 개화기 칼슘제 주1회 엽면시비, 진딧물 및 총채벌레 등 바이러스 전이 해충 방제 철저, 6월초부터 탄저병 예방방제 실시, 장마전 이랑이 낮은 곳은 고랑을 더 깊게 파주고 배수로 정비 철저히 하기 등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은 "노지채소 중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고추를 긴 장마와 태풍 등 예상되는 기상기후에도 안전하게 다수확 할 수 있도록 생육초기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기를 바란다."당부했다.

정동희/기자

연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관련 설문조사 실시

연천군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 31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공디자인 전반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문 내용은 연천군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생활환경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교통·보행·관리시설물 등)과 공공공간(도로·공원·광장 등), 공공시각(사인물·현수막 등), 공공건축물 등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용성 평가와 발전 방향 등 총 17문항이다.

참여 방법은 군청 민원실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QR코드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연천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연천군 공공디자인 표준시설물 디자인 개발 및 정책실행과 개선 방안 도출에 반영한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따라 공공디자인 수준을 향상하고 체계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군은 이번 용역으로 연천군에서 시행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개발 및 수준 향상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영기/기자

하남시, 내달 5일 '2050 탄소중립 실천 · 환경교육도시 하남 선포 행사' 개최

하남시는 '제26회 세계 환경의 날'인 다음 달 5일, 하남유니온파크 광장에서 '2050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교육도시 하남'을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사 당일 현장 참석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김상호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의원,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 대표, 청소년 등 100명 미만으로 제한해 개최된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시민 등을 위해 시는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도 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과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선언하고, '환경교육도시 하남'을 선포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김상호 시장이 시정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이야 말로 코로나19 같은 재난의 근본적 해결 책임과 동시에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라고 강조한 이후 시는 올해 초 녹색환경국을 신설, 시에서는 다양한 환경 관련 정책 등이 추진돼 오고 있다.

시는 2022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센터 재운영을 통한 교육 활성화 등 제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편, 기후위기 하남비상 행동 출범 및 업사이클링 전시회 개최 등 시민과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딱따구리 퍼포먼스 ▲하남 시민의 나무 식수 ▲기후위기 실천 약속 트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또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7월 1일 재운영을 앞두고 있는 '환경교육센터' 라운딩과 환경분야 유공자 표창 수여식도 있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 여러분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탄소 중립과 환경교육도시 하남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유튜브에서 '하남시청'을 검색하면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최근수/기자

양주시, 양주사랑카드 이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모바일로 결제하세요

양주시민들의 지역화폐 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양주시는 오는 6월부터 휴대전화 삼성페이를 통한 '양주사랑 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용 희망자는 삼성페이 앱에 기존에 보유한 양주사랑카드를 한 번만 등록하면 휴대폰을 카드결제 단말기에 터치해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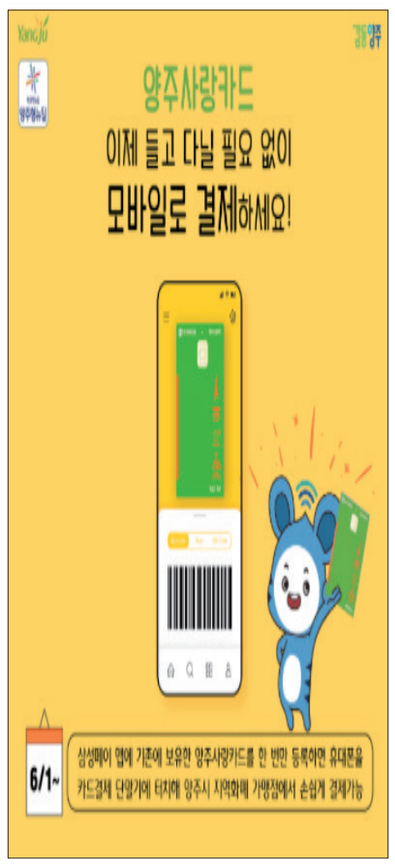
지역화폐 카드 미보유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양주사랑카드는 관내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의 가맹점 약 11,222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충전 금액의 10% 추가 인센티브 지급 및 30%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6월 1일부터는 경기지역화폐 20만원 이상 사용자 또는 20만원 이상 최초 충전자의 경우 소비지원금 5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중 선호도가 높은 삼성페이 도입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양주사랑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화폐 사용 촉진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등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안양시청소년재단, 5월 청소년의 달 맞아 재단 소식지 발행

안양시청소년재단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재단 소식지「재단톡톡(청소년 특집호)」을 발행했다.

소식지에는 안양시청소년재단 및 8개 산하 시설 소개, 안양시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청소년증 발급 받는 법 FAQ 등이 실려 관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또한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거나 자치 조직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는 청소년들의 실제 후기를 비롯해, 청소년을 향한 청소년 지도사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도 담겼다.

재단은 올해 초 소통 채널 다변화 및 함께 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월간 사내 소식지「재단톡톡」을 매월 20일 PDF 파일 형태로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특집호로 제작된 이 달 소식지는 관내 초.중.고교에 배부됐으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원종균/기자

구리시, 환경과 사람을 어우르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갈매동 육아모임 '여우지' 우리마을은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요

구리시 마을공동체 단체인 여우지(여기 지금 우리)는 지난 26일 갈매동에 위치한 갈매천을 일대에서 지역주민 및 아이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

여우지는 올해 3월 2021년 구리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책두레, 환경지킴이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하며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 마을이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목적으로 결성된 육아모임이다.

지난 2019년 공동체를 결성한 여우지는 온·오프라인에서 소통하며 지금까지 마을 내 공동육아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더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갈매천 일대를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내가 사는 마을은 우리가 지켜나간다는 생각으로 매월 1회 마을환경정화 활동을 총7회 진행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마을공동체 활동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내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자치 활동"이라며 "이런 활동들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여 시민 행복한 마을, 시민이 가꾸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사라져 가는 이웃간의 관계 형성을 위해 이웃간 소통과 교류로 신뢰를 쌓고 더 나아가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주민 10인 이상의 공동체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만식/기자

경기도, 청년들의 일터·삶·공정함 이야기하는 '2030 공감토크'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고용평등 강조기간(5월 25~31일)을 맞아 청년들의 일터, 삶, 공정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2030 공감토크'를 개최한다.

도는 '예,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를 주제로 보이는 라디오처럼 청년들의 사연, 현장 인터뷰, 뉴스 등을 활용해 패널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상은 29일 사전 녹화 후 30일 오후 8시 도청 공식 유튜브에 게시된다.

진행은 방송인 오나미·이수지씨가 맡는다. 패널로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유지은 아나운서, 이길보라 영화감독이 함께한다. 이들은 ▲2030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터 ▲MZ세대가 원하는 삶 등을 소재로 '불평등', '공정' 등 사회문제를 들여다본다. 또한 서로가 공존하며,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감토크를 통해 청년세대가 중시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평등한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광명시, 새롭게 탄생한 안양천을 시민의 눈으로 담아내다!

광명시는 지난 4월9일부터 한 달여간 진행했던 '광명시 SNS 안양천 사진 공모전' 에 출품된 총 637건의 응모작 중 수상작 15점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광명시 최고의 코로나19 방역쉼터인 안양천의 새롭게 바뀐 모습과 자연경관·야경 등 누구나 가보고 싶은 안양천의 모습을 주제로 진행됐다.

응모 작품에는 시민들이 느끼고 바라본 새롭게 조성한 안양천의 '야간경관 조명과 조형물, 기형도 시인의 빛을 담은 시화비, 아이와 어른이 동심으로 뛰어놀 수 있는 인터렉티브 체험 존' 등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하게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안양천의 쉼터 공간이 여러 각도로 담겨있었다.

시는 최종적으로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입선 9점을 각각 선정했으며, 선정된 수상자에게는 6월으뜸 광명시민 시상식에서 상장과 총 215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금상 50만원, 은상 30만원, 동상 20만원, 입선 5만원).

특히, 금상의 영예를 안은 김용철씨의 '레인보우'는 새로 설치된 안양천 경관조명을 비오는 날의 반영을 통해 다채로운 색을 표현해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공모전 수상작은 앞으로 시정 홍보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며, 금·은·동 수상작 6점은 올 4월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순회 전시(시청~광명동굴, 13개소)하고 있는 '꽃·빛·시 안양천을 품다 사진전'에 6월부터 추가로 전시할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안양천을 접하고 있는 서울·경기 7개 시·구(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와 지난 5월 11일 '서울-경기 안양천 명소·고도화 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안양천 종합계획 수립 및 안양천 벚꽃·장미 백리길 조성, 안양천 벨트 축제' 등을 공동으로 협력해 추진하는 등 안양천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전순희/기자

수원시 행궁동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장려상

수원시 행궁동이 2021년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연대회는 주민자치 사업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마련했다.

올해는 15개 시·군의 주민자치 우수사례가 1차 심사를 통과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비대면 발표와 평가가 이뤄진 가운데 8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원시에서는 지난해 수원시 주민자치 활동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행궁동이 자치 활동을 발표해 호평을 얻었다.

행궁동은 걷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실험인 생태교통2013 이후 윗마을, 아랫마을, 건넛마을 등 3개 지역공동체로 나눠 추진해 온 자치활동을 소개했다.

마을에 공유유텃밭을 가꾼 행궁마을가꾸미, 경기꿈의학교를 운영한 행궁동 골목상인회, 독거 어르신에게 도시락 등을 만들어 전달한 쿠키봉사대, 취약계층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연무정급식소 등 주민의 아이디어와 활동이 중심이 된 자치활동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주민총회와 복지총회 등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와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민자치를 향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지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숭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원 중증 환자 세이버 인증서 수여식

의정부소방서는 지난 28일 중증 응급환자(심정지, 중증외상, 뇌혈관)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인명 소생에 기여한 구급대원들에게 중증환자 세이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중증 환자 세이버는 심정지, 중증외상, 뇌혈관질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와 병원이송 후 환자가 증상 호전으로 퇴원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심의회 등을 통하여 선정된다.

이날 소방사 김제인, 변해진은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엠뷸럼을, 소방장 황정현, 소방사 임영은은 트라우마 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받았고, 소방사 김현수, 김승주, 대체인력 정혜지는 브레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받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 근무로 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소방장 이동헌에게는 별도로 전달됐다.

이선영 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속에서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활동에 임하는 구급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영기/기자

안산시, 마음건강지수 점검 프로젝트 '지수야, 안녕?'

안산시는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정신건강의 어려움 돕기 위해 '지수야, 안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수야, 안녕?'은 MBTI를 시작으로 재미있는 심리테스트들이 인기를 끌면서 '정신건강전문성을 기반한 심리검사를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지수는 친근한 '사람 이름'과 우울, 불안, 스트레스 '지수'의 이중적 의미로 우리의 마음건강지수는 안녕한지 체크해보자는 뜻으로 이름지었다.

'지수야 안녕!'은 QR코드 촬영으로 접촉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간단한 정신건강검사를 참여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활용해 접속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인 추천하기 기능을 통해 나와 주변의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체크할 수 있다.

또한 검사 후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나온 시민은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전문의 무료상담 등 심층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재훈 안산단원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만남이 소중해진 가족, 친구, 이웃에게 가벼운 인사와 함께 마음건강의 안녕을 함께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2040년, 새로운 경상북도 미리 엿본다.

2040 경북 비전(안) 마련...'더 큰 희망, 더 큰 경북'

경상북도는 28일 도청 화백당에서 종합계획에 관심있는 일반 도민, 道 실과장, 23개 시·군 기획관리실장,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기본법에 의거 지난 2019. 12월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상북도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시·군 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는데 있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경상북도 종합계획(2021~2040)'은 대구경북연구원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안)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속에서도 실국별, 시군별, 도내 연구지원기관별 신규 계획과제 제안 취합, 23개 시군별 순회토론회(2020.8~11월), 주민설문조사 실시(2020.11월~)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 이후 6. 4일까지 추가 의견을 제출 받아 반영한 후에 최종보고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에 국토교통부에 최종안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하는'경상북도 종합계획(2021~2040)'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기조 및 목표와 연계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 경기침체 극복 및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개성·특성을 살린 계획, 광역화 추세 및 지역간 연계·협력을 고려한 계획, 시·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방향 설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40 경상북도 비전은 "더 큰 희망, 더 큰 경북", 슬로건은 "미래로 세계로 뻗어 가는 경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4대 목표로 ▷차별없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지역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스마트 산업 선도지역 ▷품격있는 글로벌 문화관광 중심지역 ▷세계로 통하는 교통·물류망 거점지역을 설정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공간 구상으로는 과거 생활권별, 지역에 국한된 공간 구상에서(북부자원권, 서부산업권, 동부해양권, 남부도시권) 탈피, 2040 경상북도 비전 체계의 가치를 반영한 공간 구상으로, 2028년 개항이 예정된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도 차원에서 추진할 공간 발전

전략이 제시됐다.

새롭게 마련된 공간구상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초광역협력을 지향하는 권역으로 설정했으며(남부권, 북부권, 동해안권), 더나아가 시간경제권별 인프라 연결망 확충에 중점을 두고 경상북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계획 수립을 통해 2040년 준비를 위한 '2040 9대 신전략 프로젝트(안)'이 마련됐다. 신전략 프로젝트는 산업(디지털+그린), 사람(행복+안전), 공간(영토확장+개척)에 따른 3×3 전략으로, 산업부문에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프로젝트, ▷경북 신기술혁명 프로젝트, ▷기후위기 극복 그린경북 프로젝트, 사람부문에는 ▷All Life 행복 프로젝트, ▷세계로 열린 문화관광 프로젝트, ▷감염병 대응 안전경북 프로젝트, 공간부문에는 ▷북극항로 프런티어 프로젝트, ▷2040 한반도 통일 프로젝트, ▷경북 신공간혁명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최광용/기자

영양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추진

지속가능한 축산업, 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이룹니다

깨끗한 축산농장지정사업은 축사환경이 우수한 한우(젖소), 닭 등 농가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평가를 걸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제도로, 주기적인 사후관리 및 전문컨설턴트 지원을 통해 쾌적한 축산환경 유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영양군은 2019년 산란계농장(1호)이 관내에서 처음으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후, 2021년(상반기) 한우농장(1호)에 대해서 축산환경관리원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지정이 됐다.

향후 영양군에서는 2025년까지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총 10여 농가에 대해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깨끗한 축산농장」은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청소상태, 악취여부 및 분뇨 관리상태, 악취저감시설 가동현황, 깔짚관리상태 등 농가의 축산 환경관리 전반(12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농가를 선정하며 지정농가는 향후 5년간 깨끗한 농장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을 위해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축산환경 컨설팅을 통해「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수성문화재단, 6월 14일까지 15개 빛예술학교 운영단체 공모

대구 수성문화재단은 6월 14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빛작품을 제작할 빛예술학교 운영단체를 공모한다.

수성빛예술제는 수성못 일원에 주민 참여와 전문예술가의 연출적 요소를 결합한 빛 예술작품 전시하는 수성구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다.

빛예술학교 운영단체 공모대상은 대구·경북에 소재한 단체로, 빛·조명 작품 제작과 교육이 가능한 15개 내외의 단체를 선발한다.

접수된 단체는 심사를 통해 제작지도 인력의 전문성, 빛작품의 예술성과 창의성, 빛예술학교 운영계획의 적정성, 지원예산 사용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체 제작 및 보관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의 경우 우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는 제작지도 강사비 및 작품재료비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개 학교당 500명 이상이 참여한 개별 작품 또는 단체 작품을 10월 말까지 제작해야 한다. 축제 현장 작품 설치 시에는 전기 설비를 사용할 수 있고, 축제기간 중에는 주말 프리마켓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성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성구는 수성빛예술제를 주민이 주도하는 예술제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에게 빛 예술작품 제작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에 대한 의욕을 높이고 있다. 또한, 수성못이라는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물과 빛이 어우러진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연출로 축제 콘텐츠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민과 전문예술가가 소통하는 협업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참여를 대폭 확대해 주민주도형 빛 예술제의 위상을 확립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온·오프라인이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빛 예술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제3회 수성빛예술제는 오는 12월 10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2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문화재단 이사장(수성구청장)은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코로나19 방역망을 구축하고, 어디서든 함께 예술제의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연말 연시 모두가 따뜻한 빛으로 치유 받고 새해 희망을 기원할 수 있는 예술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안동시, '금연의 날, 구강보건의 날' 통합 비대면 캠페인 개최

안동시는 금연의 날(5월 31일)과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5월 31일 오전 11시부터 문화의 거리에서 통합 비대면 캠페인을 개최한다.

금연·구강 합동 캠페인은 아동기의 건강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금연 인형극 및 구강보건교육 영상을 사전 신청한 유아교육기관에 제공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링크 및 QR코드 제공을 통해 퀴즈 이벤트 ▲금연·구강 관련 공모전 ▲포토존(문화의 거리, 웅부공원, 월영교)에서 사진 인증하기를 진행하여 참여자들에게 커피 모바일 쿠폰과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한, 캠페인 당일, 문화의 거리 메인무대에서는 금연 및 구강건강 홍보영상을 LED로 송출하고 365 청소년 지원단의 협조로 시민들에게 건강관리리플렛과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합동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금연 및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생활 분위기 확산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달성군, 원예작물 바이러스병 예방 신기술 보급

달성군은 지난 3월부터 최근 원예작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병 예방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달성군 현풍읍, 유가읍, 하빈면 일원 고추, 가지농가 5개소에 시범적으로 투입된다.

이번에 보급한 신기술은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에서 개발한 황색빛을 내는 해충유인트랩을 설치하여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해충(총채벌레)을 유인 포집하는 기술이다. 관내 고추, 가지 농가에 본 기술을 시범 적용함으로써 바이러스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약제방제가 어려운 가루이류 방제에도 효과가 있어 농약사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유가읍 소재 가지 농가는 "요즘 총채벌레와 가루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약제 방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최근 고추, 가지, 토마토 등 가지과 작물에 발병하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는 총채벌레가 매개하는 바이러스병으로, 잎과 열매가 기형이 되고 얼룩덜룩한 반점이 생겨, 심할 경우 수확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므로 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편, 달성군은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 시범, 토마토 작은뿌리파리 천적 시범 등 다양한 농업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남궁영기/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대구은행 본점 농촌일손돕기 현장 방문해 격려

대구은행 본점 임직원 40여 명 27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 겪는 경주지역 배 재배농가 찾아 일손 도와

대구은행 본점 임성훈 은행장을 비롯해 지역본부장, 대학생 홍보대사, 경주사랑봉사단 등 40여 명은 27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지역의 배 재배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대구은행 본점 임직원들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 배봉지 씌우기 등 농가 일을 도왔다.

소식을 접한 주낙영 경주시장은 일손돕기 현장을 찾아가 격려의 말을 전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임성훈 대구은행장은 이날 일손돕기에 앞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500만원의 기부금을 경주시에 전달한 바 있다.

배 재배농가 농민들은 "5월말과 6월초 사이 배봉지 씌우기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 많았으나 본연의 일을 제치고 일을 도와 줘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심해진 영농기 농가 일손부족 상황에 바쁘신 일상 속에서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서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본격 영농시기인 6월 말까지 봉사단체, 기업,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농촌일손돕기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는 5월~6월말까지를 농번기 인력 지원 중점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농촌 일손돕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휴인력 일자리 제공을 위한 농촌인력중개센터(양남농협)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희망농가와 자원봉사자 연결, 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통한 농촌일손돕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식/기자

예천군, 귀농인 오병인씨 한국음식관광박람회 대통령상 수상!

예천군 귀농인 오병인 씨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2020 한국음식관광박람회 한국국제요리 경연대회(전통음식전시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를 얻었다.

'한국국제요리 경연대회'는 우리나라 전통음식문화 보존과 개발을 위해 국내외 최고 요리 장인들이 실력을 겨루는 권위 있는 대회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오병인씨는 지난 2016년 지보면으로 귀농해 2017년에도 '제14회 대한민국 향토 식문화대전' 대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요리경연대회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둬 예천군을 널리 알리고 있다.

현재 한국산업곤충중앙회 식품위원장과 예천곤충유통사업단 이사로 식용곤충이 들어간 고소애 고추장, 된장, 쌈장을 개발·생산해 판매하고 농촌진흥청 인증 전문교육기관인 선우농장 운영과 예천군귀농인연합회 부회장을 맡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병인씨는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고 음식으로 예천을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천군귀농인연합회 부회장으로서 예천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울산 혼인·이혼 통계 분석 "첫 결혼, 남성 32.74세 여성 30.33세에 한다"

울산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울산의 혼인·이혼 통계를 분석했다.

울산의 혼인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이혼건수는 2018년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결혼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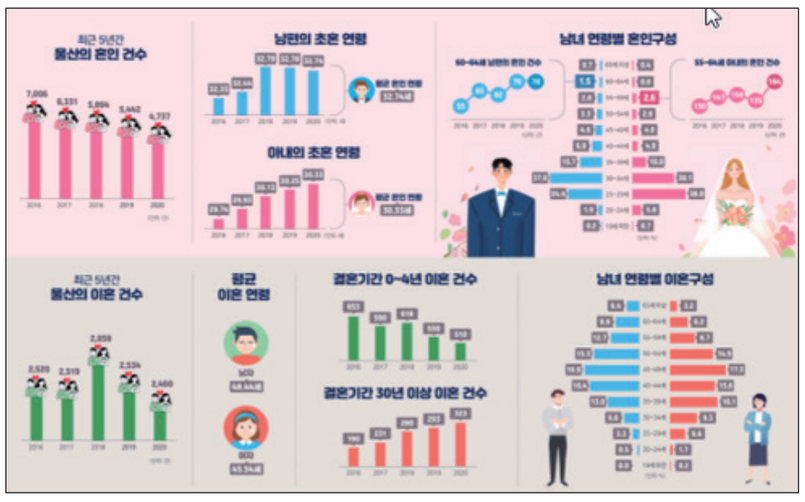
울산의 혼인건수는 2020년 4,737건으로 전년대비 705건(13%) 감소했고, 이는 2016년의 7,006건과 비교하면 32.4% 감소한 수치이다.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도 2020년 4.2건으로 전년대비 0.5건, 2016년 대비 1.8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평균 초혼연령은 2020년 기준 남편이 32.74세, 아내는 30.33세이며, 2016년보다 남편은 0.39세 아내는 0.59세 증가했다. 아내의 초혼연령은 5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남편의 초혼연령은 2018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연령대별 혼인 시기는 남편의 경우 30~34세가 1,769건(37.9%)로 가장 많았고, 25~29세 1,157건(24.4%), 35~39세 745건(15.7%) 등이었다.

아내의 경우는 25~29세가 1,802건(38.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34세 1,428건(30.1%), 35~39세 475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최근 5년간 60세를 전후한 '황혼결혼'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연령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60~64세 남편' 혼인이 2016년 50건에서 2020년 70건으로 27.3% 증가했고, '55~59세 아내'의 혼인이 96건에서 125건, '60~64세 아내'가 34건에서 39건으로 각각 30.2%, 14.7% 증가했다.

혼인의 종류는 '두 사람 모두 초혼'이 3,690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고, '두 사람 모두 재혼'이 588건으로 12.4%였다. '초혼(남편)+재혼(아내)'은 313건으로 6.6%, '재혼(남편)+초혼(아내)'은 138건으로 2.9% 순이었다.

울산의 이혼건수는 2018년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혼건수는 5년 중 최저치인 2,460건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74건(2.9%) 감소한 것이며, 2016년과 비교해도 60건(2.4%) 줄어든 수치이다.

지난해 평균 이혼연령은 남편이 48.44세, 아내가 45.54세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 이혼 시기는 남편은 45~49세 415건(16.9%), 40~44세 403건(16.4%), 50~54세 377건(15.3%)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는 45~49세 425건(17.3%)으로 가장 높았고, 35~39세 395건(16.1%), 40~44세 384건(15.6%) 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최근 5년간 60대 '황혼이혼'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연령별 증감현황을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남편'의 이혼이 157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 74건, 89.2%나 증가했고, '60~64세 남편'도 219건으로 2016년 보다 100건, 84% 증가했다.

아내의 경우도 '65세 이상 아내' 이혼이 79건으로 2016년 대비 43건, 119.4% 증가했고, '60~64세 아내' 이혼은 2016년 86건에서 2020년 153건으로 128.4%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혼기간 별 이혼현황은 '0~4년'이 20.7%(510건)로 가장 많았고 '5~9년'이 17.7%(435건)로 뒤를 이었다. 다만 2016년과 비교하면 각각 19.7%, 8.6% 감소한 수치였다.

반면 '30년 이상' 황혼이혼은 최근 5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2020년 기준 '결혼 30년 이상' 이혼건수는 323건으로 2016년과 비교해 133건, 70%나 증가했다.

한편 울산시는 최근 5년간 혼인·이혼통계 분석 결과를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기현/기자

소리로 만나는 부산, '부산의 소리'가 온다!

부산시가 부산시 대표 시민 소통 채널인 유뷰트 'B공식채널'을 전격 개편한다.

시는 이번 개편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를 신설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시행해 B공식채널을 명실상부한 시민들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신설되는 콘텐츠는 '부산의 소리'로 부산하면 떠오르는 음식과 관광명소 등을 요즘 유행하는 에이에스엠알(ASMR, Autonomous Sensort Meridian Reponse) 방식으로 소개한다. 에이에스엠알(ASMR)이란,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속삭임이나 소음을 뜻하는 용어로, 소리를 특화해 영상미로 담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1편 - 동래파전 편'은 부산의 바닷바람이 키운 기장 쪽파로 만들어 진한 향이 일품인 부산 동래파전을 소개해 옛날 방식 그대로 달궈진 놋쇠에 파전을 굽는 소리와 함께 영상으로 담았다. 28일 공개되는 '2편 - 기장 아홉산숲 편'에서는 숲의 대나무, 금강소나무, 편백 등 다양한 나무 군락을 영상에 담아 소개해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전망이다. 이어질 3편에서는 금정산성 막걸리를 소개해 소리로 부산을 더 다채롭게 담아낼 예정이다.

'부산의 소리'는 지난 2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부산시 유튜브 채널인지도 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시는 이번 콘텐츠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여유를 선물하고, 국제 관광도시 부산의 명성에 걸맞은 다양한 명소와 음식 등을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비공식채널은 2030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기 위해 만든 채널"이라며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더 다양한 시민 참여 코너를 지속해서 발굴해 부산 시민의 대표 소통 채널로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하동군, 섬진강 물길 따라 행복 추억 만들기

하동 화개초등학교와 왕성분교장은 지난 26일 섬진강 사계절 추억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본·분교 학생들이 참가해 선생님들과 함께 섬진강에서 모래성을 쌓고 악양면 동정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평사리 공원을 찾아 그늘에서 모래성을 어떻게 쌓을지 조별로 토의하는 시간을 갖고 1~6학년 본·분교 학생들이 섞여 조별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준비 도구를 구한 뒤 섬진강 모래밭으로 향했다.

학생들은 조별로 모여 각자 구상한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다. 주위에 물과 돌, 나뭇가지 등의 자연을 이용하며 창의적으로 모래성을 쌓았다.

모래성을 쌓은 뒤에는 자신들이 쌓은 모래성을 설명하고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강물에 발을 담궈 무더위를 식히기도 했다.

이후 동정호에서는 본·분교 학년별로 걸으며 동정호 자연의 특징과 인공물과 자연물의 조화 등에 대해 알아봤다.

예쁜 자연 배경을 바탕으로 친구, 선생님과 함께 사진도 찍고 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도 하면서 행복을 만끽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친구들과의 행복을 동정호에 맡긴 채 학교로 돌아와 활동 과정에 대한 느낌도 공유했다.

5학년 한 학생은 "섬진강에 놀러 왔을 때 그냥 돌, 모래, 나무로만 봤던 것이 모래성을 쌓으면서 하나의 멋진 작품이 됐다. 조별로 역할을 나눠 만드니 힘도 들지 않고 빨리 만들 수 있어서 좋았고 본·분교 친구들이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활동을 준비한 교사는 "학생들이 협력해서 모래성을 쌓고 물에 발을 담그며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한번 더 느꼈다. 동정호에서 서로 사진을 찍으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섬진강이 학생들에게 행복을 선물해 준 것 같아 감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개초등학교와 왕성분교는 본·분교 통합수업과 섬진강 사계절 추억 만들기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자연 인프라를 활용해 생태체험 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이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광용/기자

'창원교도소 이전'창원시 도시계획위 통과로 탄력

대상지 북쪽으로 위치 조정하고 진입도로 계획 변경

창원시는 26일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법무부의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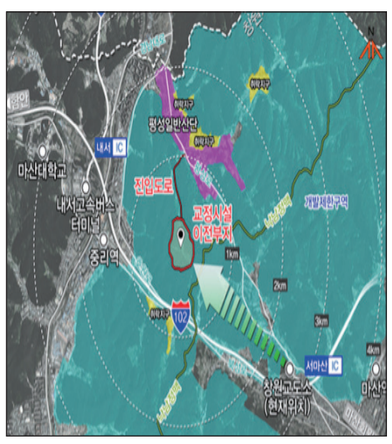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마산회원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회성동 일원의 기존 교도소를 내서읍 평성리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 중이다. 지난 2020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심의 통과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은 교도소 이전 예정부지에 지정된 낙남정맥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해, 대상지 북쪽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진입도로 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지난해 5월 입안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행정절차 추진 중이었으며, 그동안 교도소 이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협의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

하지만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주민간담회(안평대책위) 실시 등 적극적인 주민 소통과 지역 국회의원(윤한홍) 및 시의원 등과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 등을 협의해왔다. 지난 4월 26일 평성마을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직접 주민들과 만나 민원현황을 설명하고, 교도소 이전사업 협력을 요청하는 등 민원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마산회원구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말했다.

남궁영기/기자



밀양시, 2021년도 아랑제향 봉행

밀양시는 5월 27일 영남루 내 아랑각에서 2021년도 아랑제향을 봉행했다.

밀양아랑회 주관으로 봉행된 이번 아랑제향은 아랑의 정순정신을 기리는 추모제의 의미에 더해 밀양시민의 안녕을 염원하는 기원제로서 거행됐다.

특히, 아랑규수 선발대회를 통해 선발된 아랑규수들이 제를 올리던 이전의 형식과 달리 올해는 처음으로 지역 내 고등학교로부터 추천받은 남녀 고등학생 20명이 제관으로 참가해 정순정신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새역사를 쓰게 됐다.

학생들은 시대상에 부합하는 아랑제향 봉행을 위해 정갈한 한복을 입고 제를 올렸으며, 이전에 제관이 여성으로만 구성됐던 것과 달리 이번 제향에서는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된 헌관 외에 남학생 2명이 축관과 집사로 참여해 아랑제향의 변화된 모습을 실감하게 했다.

박일호 시장은 "밀양을 대표하는 정순정신을 기리기 위한 아랑제향에 지역 학생들이 참가해 우리 고장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간다는 점이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밀양의 자랑인 아랑의 역사와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거제시 연초면 아우름센터·동부면 참살이센터 준공 "지역 활성화와 문화복지 향상 기대"

거제시는 지난 25일과 27일 연초면'아우름센터'와 동부면'참살이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준공식은 주민 교류와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 거점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초면 아우름센터는 옛 연초면 복지회관 자리에 지상 4층, 연면적 1288㎡ 규모로 신축하여 1층에는 북카페와 운영사무실을, 2층은 대회의실, 3층에는 동아리실, 4층은 헬스장으로 마련했다.

동부면의 참살이센터는 동부면사무소 내 주민자치센터를 헐고 지상 3층 연면적 845㎡ 규모의 주민 문화복지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1층에는 주민카페와 다목적 사무실을, 2층에는 체력단련실과 동아리실, 3층은 다목적강당 시설을 갖춰 면 중심지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아우름센터와 참살이센터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낸 공간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설을 잘 유지·관리하여 주민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행복한 문화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준공식을 축하했다.

한편,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계획에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연초면과 동부면은 권역별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됐다.

거제면 권역과 일운면 망치권역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강영훈/기자

로컬푸드 직매장 통영축협 입점기념 꾸러미 사전예약 실시

통영로컬푸드회(회장 김원수)는 통영축협 중앙하나로마트 입점기념으로 꾸러미 판매를 위한 사전예약을 실시한다.

꾸러미 구성은 국내산 돼지고기, 모둠쌈채, 고추·마늘·오이 모둠, 양파장아찌이며 1세트에 3만원이다. 구성된 채소류는 모두 관내에서 재배·생산되는 농산물이며 모두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꾸러미 사전예약은 5월 28일(금) ~ 6월 3일(목), 7일간 실시하며 전화예약으로 접수받는다.

한편, 로컬푸드회는 2018년에 발족하여 현재 회원농가는 총 106농가이며, 새 통영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작년 한 해 매출액 4억5천만원을 달성한 바가 있어 이번 통영축협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직매장을 시범 운영하고 오는 6월 중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강영훈/기자

‘모든 가족 존중받는 전남 함께 만들어요’

전남도, 27일 곡성서 2021 가정의 달 기념식

전라남도는 27일 곡성기차마을 로즈홀에서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전라남도, 함께 만들어가요’라는 주제로 2021 가정의 달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구복규 도의회 부의장, 가정의 달 유공자, 어린이날 기념 그림 공모대회 수상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한부모·위탁부모·결혼이주여성의 바람이 담긴 영상물 상영, 가정의 달 유공자 표창, 영재드림오케스트라 축하공연, 꿈이 담긴 종이비행기 날리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어린이날 기념 그림 공모대회 수상작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전남도는 어린이날, 한부모가정의 날, 입양의 날, 가정위탁의 날 등 가족과 관련한 기념일이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다양하게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를 돌아보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포용사회로 가기 위한 내용으로 행사를 치렀다.

김 지사는 기념사에서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고 있어 이들이 존중받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도록 다양성이 공존하는 포용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민 한분 한분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가족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통해 ‘내 삶이 바뀌고 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전남 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자”고 강조했다.

오케스트라의 흥겨운 연주가 펼쳐진 가운데 김 지사와 참석자들은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는 전남을 만들자는 희망과 꿈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로 기념식이 막을 내렸다.

김영안/기자

장성군, 높은 백신예약률… ‘코로나프리’ 앞당긴다

전국 평균 웃도는 73.7% 기록… 고령층일수록 예약률 높아

장성군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예약률이 전국 평균(60.6%)을 웃도는 73.7%를 기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장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백신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접종을 예약한 주민의 비율이 60~64세 64%, 65~69세 78.2%, 70~74세 80.9%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사와 돌봄 종사자 등을 포함(83%)한 사전예약률은 지금까지 73.7%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백신 사전예약제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군은 60~64세 주민의 사전예약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주목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마을 이장을 통해 전방위적인 제도 홍보 및 접종 독려에 나설 방침이다.

사전예약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로, 만 60~74세 주민과 어린이집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기간을 경과하면 예약이 불가하며, 위탁의료기관을 통한 일정 변경만 가능하다.

예약은 위탁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보건소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26일 오전, 위탁의료기관인 장성병원에 들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분을 접종받은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 뿐”이라고 강조하며 “대상 주민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사전예약을 통해 백신을 접종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군은 오는 6월부터 백신 접종자들을 중심으로 경로당 및 복지관 프로그램의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오홍곤/기자

무안군, 게르마늄 ‘황토랑쌀’ 전남 10대 브랜드쌀 12년 연속 선정

무안군 대표 브랜드 황토랑쌀이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올해도 선정되어 지금까지 12년 연속, 총 14회에 걸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2003년부터 선정하고 있는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은 생산·가공·저장·유통까지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쌀을 선정하는 평가이다.

분야별 전문기관에 의뢰해 블라인드 평가방식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쌀을 평가했다.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 시중 판매처에서 2차례에 걸쳐 무작위로 시료를 구매하였고 품종 혼입률·중금속·잔류농약 검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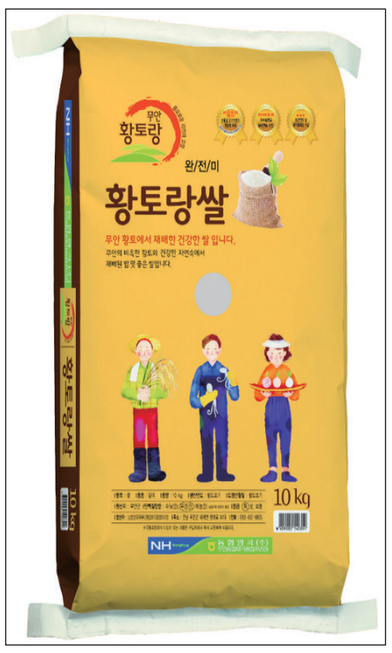
이번 평가에서 무안 황토랑쌀은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간척지에서 재배되어 미질뿐만 아니라 밥맛까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엄격한 품종 관리와 선별 과정으로 원료곡 재배와 제품 생산, 관리 모두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한편, 농협양곡(주)무안통합미곡종합처리장은 GAP시설에서 도정한 ‘황토랑쌀’을 당일 출고하고 있으며, 2020년 무안군이 지원한 생산시설 개보수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 소비자에게 깊은 신뢰를 쌓고 있어 이번 전남 10대 브랜드 쌀 선정을 통해 지역 쌀 산업에 더 크게 기여하게 됐다.

김산 군수는 “황토랑쌀이 전남 대표 브랜드를 넘어 전국 최고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배농가, 미곡종합처리장과 협력하여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기석/기자



김종식 목포시장, 역점사업 국비 확보 총력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역점사업 재정 지원 특교세 건의

김종식 목포시장이 특별교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을 만나 역점사업의 당위성과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비를 충당하는 정부 재원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확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김 시장이 지원을 요청한 역점사업은 ▲용해지구 문화시설 건립사업(10억원) ▲청년쉼터「박스파크」조성(5억) ▲해변 맛길 30리 조성(10억원) ▲재난재해 안전전광판 설치사업(4억원) ▲전국체전 대비 목포종합경기장 건립(50억원) 등도 추가적으로 건의했다.

시는 지속적인 국고 확보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사업들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식 시장은“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의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며 “재정난 속에서도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중앙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김동일/기자

여수시, 봄철 관광객 회복세…주요 관광지 방역강화 총력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안전 여행’을 위한 관광지 방역활동 강화 주력

여행하기 좋은 봄철, 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으면서 여수시가 관광객 증가 추세에 대응해 주요 관광지 방역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26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가 본격 확산된 2월부터 5월 23일 기준 방문객 수는 202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전년 동기 약 257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약 27.2% 증가했다. 5월 주요 숙박시설 평균 투숙율은 약 65.4%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월 들어 여수 지역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방문객 수가 늘고 있어 주목되는 수치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 회복단계로 들어서며 코로나19 이전 여수 관광의 위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여수 관광이 명맥을 유지한 것은 시의 적극적인 관광 방역대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여수시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발생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철도역, 여객선터미널 등 공무원 24시간 발열 근무와, 관광시설 공무원 전담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관광시설 70개소에 대해 공무원들이 1일 15개소를 직접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1,819회, 올해 5월 현재 1,637회를 점검하는 등 ‘안전 여행’을 위한 관광지 방역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당초 4월 종료예정이었던 관광지 방역관리 기간제근로자도 연장 배치해 방문객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지도와 철저한 방역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여수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비대면 여행트렌드 속에서 올해도 탁 트인 바다와 섬 등 천혜의 자연이 가득한 여수가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변화하는 여행트렌드에 맞춰 포스트 코로나시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는 최근 비대면 여행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여수 섬섬길’ 드라이브 코스, ‘섬 둘레길’ 도보여행 코스, ‘여자만 갯노을길’ 자전거 여행코스 등을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싸목싸목 낭만 낭도’ 사업도 이르면 6월부터 추진에 들어가 때 묻지 않은 자연에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최근 ‘웰니스 관광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여수만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모델 개발을 위해 ‘여수시 웰니스·온택트 관광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향후 웰니스 기반시설 구축과 민자유치 지원, 웰니스 관광사업 공모에 대비할 전략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5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응해 ‘여수시민 긴급 멈춤 주간’ 운영 등 민·관이 힘을 합쳐 확산세가 다소 진정된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관광지에서는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관광사업체는 철저한 방역은 물론 정직과 친절로 관광객 맞이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시가 철저한 방역과 새로운 관광콘텐츠 확충으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 여행 재개 시 첫 국내여행 희망 방문지’를 조사한 설문 결과 기초지자체 중에서 여수가 1위를 차지해 국내 최고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자리 잡았음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남출/기자

전남도, 도민 행복위한 주민자치권 향상 온힘

전라남도는 28일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응해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치분권 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주민자치권 향상에 노력키로 했다.

송상락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과제 담당 부서장 15명이 참석해 과제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와 토론을 통해 전반적인 도 자치분권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하기 위한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분야 33개 실행과제에 대해 도 차원의 지방분권 TF팀을 구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올해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원년이다. 지난해 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2022년 1월 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점으로, 이번 보고회를 통해 분야별 자치분권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권 향상에 온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또한 수도권에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자원이 집중해 지방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과 함께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송 부지사는 “올해는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이 되는 해로 ‘자치분권 2.0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김영안/기자

장흥군 부산면, 탐진강 자전거 길에 금계국 활짝

장흥군 부산면 용반리 탐진강 제방에는 지금 금계국들이 활짝 피어 온통 황금빛을 이루고 있다.

이곳은 장흥읍 연산리에서 부산면 용반리에 이르는 탐진강 제방을 따라 조성된 8km 자전거 길의 일부로서, 해마다 5월 말에서 6월에 장관을 이룬다.

탐진강 자전거 길은 장흥읍 및 부산면 주민들에게는 운동 코스로, 관광객들에게는 라이딩 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장흥군에서는 자전거길 제방에 가시나무 등 상록수를 심어 그늘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관상수도 심을 예정이다.

김소향 부산면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요즘 이곳에 들러 꽃을 보며 산책의 여유를 즐겨도 좋을 것이다”며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을 채취하여 금계국 서식지를 더욱 확장해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익산 '청년취업박람회' 개최

고용안정일자리센터·원광보건대 공동 개최

익산시가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와 원광보건대학교는 27일 원광보건대 멀티미디어실 앞에서 청년취업 박람회를 열었다.

박람회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백준흠 원광보건대학교 총장,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영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하림산업과 ㈜광전자, 원광대학병원, 익산병원, 실로암사랑요양원 외 총 42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이력서접수 등을 실시했다.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자소서 컨설팅관, 모의면접, 이미지 컨설팅관, 기업홍보관 등 30개 부스가 운영됐으며 취업에 관한 다양한 즐길거리까지 마련돼 구직자들의 취업 과정을 지원했다.

박람회는 지역 청년 고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8일 열린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자리 거버넌스 kick off'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박람회 개최로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 확대를, 기업은 구인난을 해소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청년 취업박람회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지역 우수 기업에 취업해 익산에 안착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구직자의 눈높이를 맞춰 청년들과 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부안 우금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지 지정 확정

부안군은 지난 26일 문화재청에서 부안 우금바위 일원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명승으로 지정하기로 원안 가결 됐다고 밝혔다.

부안 우금바위 일원은 부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매우 아름다워 예부터 즐겨 찾는 곳이다.

우금바위는 우금산에 위치하며 주변에 개암사를 비롯해 우금산성 등의 명소가 있다.

676년 원효·의상스님이 우금바위 아래에 있는 우금굴에 머물렀고 이를 암자로 중수해 이후에는 '원효방(元曉房)'이라 불렀다 한다.

우금바위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개암사는 17세기의 대표적인 불전(佛殿)으로 변산반도를 대표하는 변산팔경(邊山八景) 중 개암고적이며 개암사 대웅전은 뛰어난 조각술로 이름 높은 건물이다.

우금산성은 백제부흥운동의 중심지였던 주류성으로도 알려져 있다.

우금바위에 대한 인문학적 기록을 살펴보면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우금암도(禹金巖圖)'가 대표적이다.

우금암도는 강세황이 변산반도 일대를 유람하면서 그린 그림으로 그 중에 우금바위가 가장 넓은 폭을 차지하고 있다.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 역시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볼만한 것이 있으면 시를 짓고 글을 지어서 이를 기록했는데 우금바위 역시 기록돼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우금바위의 역사·문화적 가치는 매우 높다.

문화재청은 오는 6월 중 부안 우금바위 일원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최종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작년 직소폭포가 국가 명승 제116호로 지정됐고 연이어 우금바위 일원이 국가 명승지로 지정됨에 따라 아름다운 부안의 경관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게 됐다"며 "우금바위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전북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팀 출범

안전성 검사반, 원산지단속반 등 4개 반 15명 전담팀 구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도 전담팀이 27일 출범했다.

전담팀은 4개 반으로 구성, 각각 수산물 방사능·안전성 및 품질 위생검사, 일본산을 중점으로 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단속, 해양환경의 방사능 감시 결과 수집 및 안전성 홍보 등 수산물 소비위축 우려에 대한 대응 임무를 수행한다.

생산단계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10건에서 30건으로 늘리고, 유통단계 수산물과 급식 식자재 등 다소비 품목 중점으로 300건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수입 수산물 중점으로 원산지단속도 연간 2회에서 10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오염수 방류 이후를 대비한 사전 준비 및 단속을 점차 확대하여 운영하며, 향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시·군, 어업인단체, 소비자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담팀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전담팀을 이끄는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반별로 장비와 인력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방사능 검사와 원산지단속 빈도와 횟수를 최대한 늘리고, 전담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지난 4월 14일 즉각적인 반대입장 발표에 이어 이날, 수산정책과를 중심으로 5개 부서 1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출범했다.

김송일/기자

전북 진안교육지원청, 봄이라 '진안고원지역대 출범식과 선서식'을 해봄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진안지구 연합회 '진안고원 지역대' 출범식 및 선서식이 지난 26일 진안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열 체크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안교육지원청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출범하게 되는 진안고원 지역대(단대장 윤일호)는 대장 8명을 비롯하여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 대원 74명으로 구성됐다.

출범식은 대원 입장을 시작으로 개식선언 및 운영단 소개,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이 진안고원 지역대 단대장에게 대승인장 및 대기 전달, 선서식 순서로 진행됐다.

앞으로 진안고원 지역대는 오는 6월부터 스카우트 활동을 시작으로 생태탐험, 역사탐방, 여름 방학동안 1박 2일 미니 잼버리를 추진하는 등 2023년 새만금에서 개최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여 자격을 갖춘 스카우트 대원 양성을 목표로 각종 프로그램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교육지원청 박종각 교육장은 "우리지역 학생들이 국가사회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스카우트 대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진안지구 연합회 전춘성 회장은 "진안고원 지역대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스카우트 활동을 시작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이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넘어 청소년이 리더십을 키우고 꿈을 더 높이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종철.이희철/기자

무주군,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무주군이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깨끗한 축산농장(CLF : Clean livestock Farm) 신청을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축의 사양관리, 주변경관과의 조화, 적정한 가축분뇨의 처리 등 축사 내 · 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 발생을 막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환경조성을 실천하는 농장이다.

무주군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20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8개소 지정을 목표로 인증 농가를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신청대상 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로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 및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농가는 제외된다.

각 읍 · 면사무소 및 농업정책과에서 연중 신청을 받으며, 축산환경관리원의 확인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지정한다.

무주군 농업정책과 이은창 과장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축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축산농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받은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관련 지원 사업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추가 배정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우/기자

원주 혁신 라운드 테이블, 문화도시 원주와 함께

'로컬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주제로 공동 사업 추진

원주 혁신 라운드 테이블(상임대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센터장 제현수)와 함께 '로컬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라이프스타일 인 원주 : 청년편'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주 혁신 라운드 테이블은 원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지역연대 기구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대학, 중간지원조직, 시민단체, 원주시의회, 원주시 등 34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2월 발족했다.

'라이프스타일 인 원주 : 청년편'은 원주에 거주하는 청년의 성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문화적 방식으로 청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6월 1일 사전 대화 모임을 시작으로 문화X혁신X도시 포럼, 도시하루여행 프로그램 등 대상별·목적별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지역 청년 정주 여건 관련 이슈 발굴 및 담론 도출을 위한 1단계 사전 모임에서는 총 100명이 9개의 대화 모임으로 나눠 '원주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어떻게 살고 싶나요?',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장인, 공무원, 학생 등이 참여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도로교통공단에서 6월 1일과 2일 양일간 운영된다.

대화 모임과 더불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를 매개할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문화X혁신X도시 포럼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2단계 문화X혁신X도시 포럼은 '라이프스타일 인 원주, 우리는 어떤 혁신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6월 14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다.

사전 대화 모임을 통해 제기된 청년 담론이 토크쇼로 공유되며, '2020 원주시 청년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 등에 대한 종합발표를 통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지역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혁신적인 방법을 논의한다.

포럼에는 1단계 사전 대화 모임 참여자 및 혁신 라운드 테이블 관계자가 참석해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전체 포럼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다.

3단계 도시하루여행 프로그램은 담론 제기를 넘어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경험 공유의 하나로 마련됐다.

다양한 이유로 원주로 이주한 청년들이 지역의 공간 및 콘텐츠를 경험하고 지역 주민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활권과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이다.

사전 대화 모임 참여자와 포럼 참여자가 우선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8일과 15일 총 2회에 걸쳐 운영된다.

원주 혁신 라운드 테이블 관계자는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주체로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정작 혁신도시로 이주한 청년들의 문제를 살피지는 못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원주와 만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최만식/기자

'태백형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청년창업기업 이전 지원 협약체결

태백시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태백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손잡고 청년창업기업 지역이전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친다.

시는 27일 오전 11시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와 '태백형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기업 이전 및 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시는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협력재단이 관리하는 농어촌 상생기금에 7억 원을 위탁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사업비를 집행·관리하며,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는 2023년까지 이전계획에 따라 공장 등을 이전하기로 약속했다.

'태백형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는 태백시와 협력재단이 협력하여 혁신성장이 가능한 청년창업기업의 지역이전을 통해 침체된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태백시가 선택한 첫 번째 청년창업기업인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는 스마트 커피 로스팅 머신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향후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곳을 태백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또, 이전 계획에 따라 필요한 일자리 수요는 태백시 내에서 수급할 계획이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태백시에서 직접 기업을 지원하는 태백형 넥스트유니콘 기업 지원 1호 협약식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태백형 1호 기업 지원인 만큼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스토롱홀드테크놀로지가 태백지역에 정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태백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력재단 김순철 사무총장은"지자체가 직접 기금을 출연하여 기업의 지역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태백시가 전국 최초인 것 같다"라며"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자체가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밝혔다.

우종욱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대표는"태백형 넥스트유니콘 1호 선정기업인 만큼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겠다"며,"태백지역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회사운영의 수익창출이 지역에 선순환 되는 태백의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협력 상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정선군, 디저트와와 김민희 대표 한국음식관광박람회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 단체전 금상 수상

정선군은 2021 한국음식관광박람회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에서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동아리 "디저트와와"의 김민희 대표가 단체전 한식부분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 한국음식관광박람회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는 (사)한국음식관광협회 주최로 서울 aT센터에서 지난 5월20일부터 4일간 열렸다.

김민희 대표는 제빵전문으로 출전, 김지미(태백음식문화연구소&구와우순두부)와 최우혁(파크로쉬 리조트&웰니스)등과 함께 한팀으로 제철 약선 한식으로 한식부분 금상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민희 대표는 앞으로 지역 로컬 디저트 메뉴를 개발하여 정선군민과 정선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로컬 디저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로컬 음식문화의 즐거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디저트와와"는 2021년 강원도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사업에서 최종 선정 동아리로 2020년 직업교육훈련 디저트카페창업과정 수료후 자발적으로 결성된 동아리이며, 정선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아리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수업 및 실습 재료비 지원, 동아리 사업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놓인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 음식 산업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로 여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음식관련 분야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강원도 4월 관광, 동해안 및 내륙 모두 고른 성장 보여

전월대비 설악산 소공원(210%), 양양 서피비치(38%) 방문 급증

강원도관광재단은 이번 4월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 발표를 통해 금년 4월 강원도 방문 내·외국인을 합산한 도 방문 전체 관광객은 961만 9천여 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관광객 수를 보였다고 27일 밝혔다.

통상 4월은 방학과 공휴일이 없는 관광 비수기로 분류되지만 금년 4월의 경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도 방문 2021년 1분기 평균 관광객 수치인 836만 9천여 명에 비해 약 1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의 가장 큰 관광시장인 수도권에서 동해안과 내륙 산악관광지 등 비대면 자연관광지를 많이 찾은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전월대비 관광객 증가율에서는, 속초시가 약 4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 20%이상이 설악산 소공원 방문객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동해시, 양구군, 고성군, 평창군, 양양군 순이다. 반면 감소율은 원주시(7.7%)와 춘천시(6.7%)에서만 나타났는데, 20대의 관광객 방문이 줄어든 것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출발지별 동향을 보면, 서울 송파구가 31만여 명으로 전월대비 약93%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고, 이어서 경기도 남양주시, 서울 강동구, 강서구, 강남구 순으로 방문하였다. 상위 20위 출발지 중 절반 이상인 11곳이 서울권인 바, 강원도 방문의 주시장이 서울임이 나타났다.

관광소비 면에서는, 약 1,427억 원의 소비규모로 금년 3월 대비 약 7.6% 상승한 100억여 원의 소비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소비 중 음식소비가 약 1,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숙박, 레져, 교통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 주요 관광지 세부분석 중, 양양군 서피비치와 삼척 장호항 사례를 통해, 그간 계절의 한계가 있었던 해변관광지가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바뀌고 있으며, 해양관광 콘텐츠가 집중되어 시너지가 나게 됨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속초 설악산의 경우는, 입산통제 기간임에도 비대면 자연친화 관광지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설악산 저지대를 중심으로 등산관광이 활성화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등원/기자

강릉시, 아이가 있어 행복한 '가족 사랑 사진전' 개최

강릉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문화 확산 및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가족 사랑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강릉시가 주최하고 강릉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가족 사랑'을 주제로 하여 시민들이 제출한 사진으로 사진전을 개최하고, 시민 투표로 당선작을 선정하여 상금 및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이다.

시에서는 지난 4월 20일(화)부터 5월 9일(일)까지 시민들에게 사진을 접수받아 1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30점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오는 29일, 30일 10시부터 17시까지 월화거리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여 최종 당선작 15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투표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현장에 설치될 안내부스에서 투표 스티커를 받아 사진에 붙이면 되며, 투표를 완료한 관람객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시상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15명에게는 시상금 20만 원 및 액자를, 나머지 입상작으로 선정된 15명에게는 액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영란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가족사랑 사진 공모전을 통해 가족과 소통하며 소중함을 더욱 일깨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가족 내 양성평등 실현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홍천군 홍천읍, 장날 맞이 '우리동네 건강놀이터' 운영 주민 호응 높아

홍천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월 26일 야외 주차장에서 '우리동네 건강놀이터'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혈압·혈당 체크, 구강보건교육, 금주·절주 홍보, 스트레스 검사, 우울증 선별검사가 진행됐으며, 장날을 맞아 야외에서 실시돼 주민들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동네 건강놀이터는 홍천군 보건소, 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건강 프로그램으로 올해 3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박순자 홍천읍장은 "주민 스스로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기존 복지서비스에 건강까지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충북도-지역국회의원 국비확보에 '맞손'

5.28일, 2021년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 열

충북도는 5월 28일(금) 17:00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여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충북현안 해결과 2022년 정부예산 확보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하여 서승우 행정부지사, 성일홍 경제부지사와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종환(청주 흥덕), 정정순(청주 상당), 이장섭(청주 서원), 엄태영(제천·단양), 임호선(증평·진천·음성) 등 충북 지역구 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정 주요 현안 해결과 2022년 7조원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예산 사업이 집중 논의됐다.

주요현안으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 △북한강 수계 발전댐(화천·팔당) 용수의 다목적 활용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오송 유치 △청남대 나라사랑 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주요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6월말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감곡~혁신도시간 광역철도, 충남(대전~예산~천안) - 충북(청주) - 경북(영주~울진)을 잇는 동서횡단철도 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정부예산 사업으로 ▶ 충북선 철도 고속화 ▶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건설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 중부 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 ▶ 청주국제공항 신활주로 재포장 ▶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 등 ▶ 세포유전자치료제 임상시료 GMP생산시설 구축 ▶ 세포은행 특성분석 지원센터 구축 ▶ 스마트반려식물 지원센터 건립 ▶ 청남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가경분구) 침수예방사업 ▶ 순환경제 산업화 기술지원 사업 ▶ 2022 국제무예활성화 사업 ▶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 음성 천년숨결 국가생태탐방로 ▶ 소방산업진흥센터 구축 ▶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등 32건에 대해 국비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충북도의 현안사업이 중앙부처 예산과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고, 충북의 대도약을 위한 2022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최만식/기자

괴산군 보건소, '제76회 구강보건의 날' 이벤트 진행

괴산군 보건소는 오는 6월 9일 '제76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건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괴산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6월 7일~13일까지 7일간 팝업창을 통해 구강보건교육 영상 '너만 모르는 칫솔질 방법'을 시청하고 영상 속 숨어있는 5글자를 맞추면 된다.

괴산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정답과 함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이메일로 전송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경품도 증정한다.

추첨 결과는 14일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를 칫솔질 방법을 알리고 칫솔질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군민의 구강 관리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 보건소는 다음달 28일에 괴산읍 산막이 시장 및 괴산읍 일원에서 치아모형풍선 및 구강관련 캐릭터 등을 이용한 건강증진 홍보차량 순회 및 캠페인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구강보건 사업 프로그램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치아 건강을 위해 군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정동희/기자

세종도시교통공사, 두루타 버스(DRT) 세종시 읍면 전 지역으로 전면 확대 운행

세종도시교통공사는 28일부터 세종시 읍면 전 지역까지 수요응답형 두루타(DRT) 버스 운행을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면 확대 운행하는 두루타 버스는 1시간 전 콜센터로 예약전화를 하면 버스가 마을 앞까지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수단이다.

두루타 버스는 2019년 12월 장군면 운행을 시작으로 꾸준히 이용률이 증가되어 금남면, 조치원, 연서면 지역까지 교통편이 취약한 22개 마을을 운행했다.

이번에 전면 확대운행에 포함된 마을은 기존 시내, 마을버스 및 마을택시가 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연동, 부강, 전의, 전동, 소정면 안의 11개 지역으로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마을이다.

연동면과 부강면은 내판5리, 문곡3리, 등곡1리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연동면을 운행하는 두루타 버스는 부강을 출발 내판5리를 거쳐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오간다.

부강면 지역은 부강복지회관을 출발해 부강역과 부강면사무소를 거쳐 문곡3리, 등곡1리까지 두루타 버스를 운행한다.

전동면과 전의면은 원성1·2리, 관정1리, 동교3·4리, 미곡2리(관불사) 등 6개 마을을 중심으로 운행하며 전의면, 전의역, 재동아파트에 정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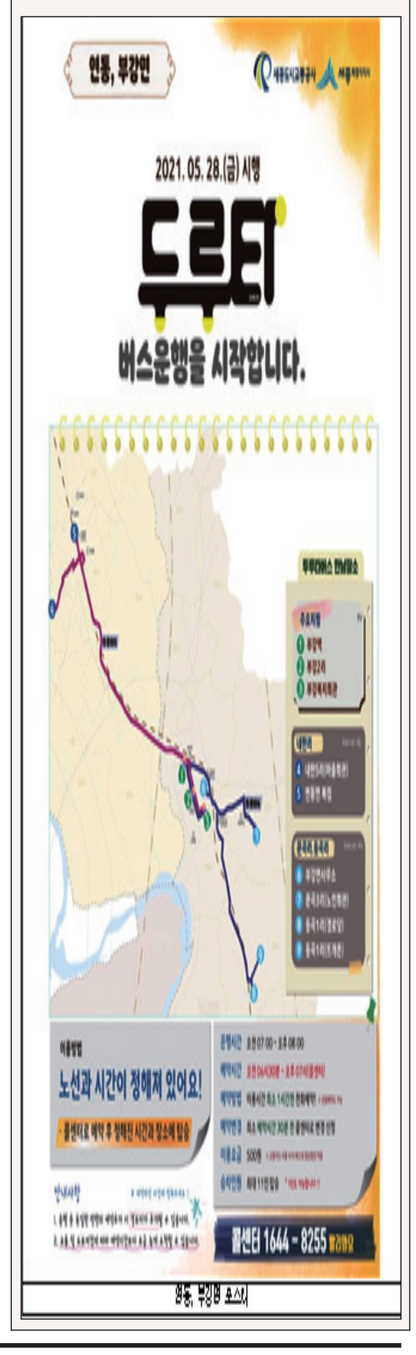
소정면은 운당2리, 대곡1리 2개 마을을 중심으로 운행하며 소정면사무소, 소정리역, 전의면에 정차한다.

두루타 이용요금은 500원이며, 세종시가 운영하는 BRT, 시내버스, 마을버스 외에도 두루타 간 환승과 대전에서 운영하는 B1, 1002번도 환승이 가능하다.

현행 환승정책에 따라 하차시간 기준 회당 60분 이내, 3회까지이며, 교통기능이 탑재된 카드로 요금 지불을 해야 환승혜택을 볼 수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사장은 "수요응답형 버스인 두루타 세종시 전 지역 확대 운영으로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대가 크다"면서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두루타 버스 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청주시, 초정행궁에서 즐기는 반찬등속 음식감상회 개최

청주시가 '초정행궁에서 즐기는 반찬등속 음식감상회'를 개최한다.

시는 시민들에게 초정행궁과 아울러, 100여 년 전 우리 지역의 음식문화 기록인 '반찬등속'을 널리 알리고자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초정행궁에서 즐기는 반찬등속 음식감상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매주 토·일요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두 차례 진행된다.

음식감상회 구성은 ▲세종임금이 드셨던 구선왕도고죽과 곁들임 찬으로 꾸민 식전 상차림 '죽상' ▲마늘짠지가 들어간 떡갈비와 북어짠지로 만든 잡채, 약주로 차린 '주안상' ▲진니국밥과 반찬으로 차린 '진지상' ▲달콤한 박정과, 바삭한 산자, 달걀지단 인절미로 차린 '다과상' 등 총 4코스로 구성했다.

1회 참여 인원은 10명으로 모든 행사는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초정행궁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전화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체험비는 1인 당 2만 원으로 음식감상과 시식을 할 수 있다.

이번 초정행궁 수라간에서 열리는 반찬등속 음식감상회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체험행사에 따른 발열 체크, 안심콜 방문등록, 칸막이 설치, 철저한 소독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한다.

첫날인 29일 음식감상회에는 한범덕 청주시장이 참석해 음식을 감상하고 시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충북유형문화재 제381호 '반찬등속'은 1913년 청주 상신리 진주강씨 집안의 며느리에 의해 고 한글체로 쓰인 조리서다.

청주지역 양반가의 음식 만드는 방법이 기록돼 당시의 식문화는 물론 생활상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0여 년 전 청주지역의 풍속과 언어, 역사,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높은 귀중한 자료다.

최만식/기자

음성군, 행복한 원남면, 우리 모두가 출생을 축하드립니다.

원남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허재현)가 원남면 상노리 출산 가정의 행복한 육아를 응원하기 위해 올해 원남면 첫 출생아인 쌍둥이 남매에게 신생아용품(체온계와 휴대용 아기침대 세트 등 총 30만원 상당의 신생아용품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원남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연간 계획 중 하나인 인구증가를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7번 생산적 일손봉사에 참여 후 지급받은 실비로 축하용품을 구입해 지원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상노리 마을에서도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원남면에서 태어난 새 생명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백일을 맞은 아기들의 백일떡을 맞춰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허재현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축하용품은 작고 소박한 선물이지만, 아이의 안전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준비하게 됐다"며 "이번 시책으로 매년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농촌에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인구유입과 출생률 증가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선 원남면장은 "아기의 출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함으로써, 새 생명이 태어난 가족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당진시 김홍장 시장, 충남 시장군수협의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공동건의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27일 논산시에서 개최된 민선7기 제5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의했다.

이번 회의는 협의회장을 맡은 황명선 논산시장의 주재로 제21회 지방정부회의 안건 사전협의 및 시군 협조사항 전달을 위해 개최됐으며,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방정부 간의 공동 노력으로 변혁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강조하여 충남 시장·군수의 성원을 이끌어 냈다.

또 이날 15인의 시장·군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손 피켓 퍼포먼스를 시행해 대내외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지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는 ①국가와 지방정부 SDGs 수립 및 이행점검 의무화 ②대통령 소속과 지자체의 장 소속으로 각각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③UN SDGs를 반영해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 및 보급 ④국가와 지역은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하고, 녹색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포용적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체계가 정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의 정책을 보다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원호/기자

야간에도 안전하게 공원 이용하세요!

무궁화어린이공원 등 4곳 노후 공원등 고효율 LED로 교체

청주시가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궁화어린이공원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2200만 원을 투입해 LED등기구 8개, 전선관 204M, 분전함 등을 설치했다.

낡은 나트륨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게 된다.

한편, 무터골어린이공원, 서현근린공원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6월 중 마무리 할 예정이며, 푸른어린이공원은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 올해 10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원 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조규일 진주시장, 이건희 미술관 유치 위한 광폭행보 펼쳐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 실현 위한 진주 유치 당위성 피력

조규일 진주시장은 5월 26일과 27일 양 일간 서울을 방문하여 손병두 전)호암재단이사장 등 재경 향우와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단,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를 연이어 만나 이건희 미술관의 진주지역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번 방문은 진주시가 지난 17일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가진 이건희 미술관 진주유치 당위성과 구체적인 유치 방안 발표 이후 이루어진 본격적인 활동으로 전 시민의 관심을 갖고 있다.

진주시가 밝힌 이건희 미술관의 유치 당위성은 세 가지이다. 우선, 삼성의 경영철학을 더욱 빛나게 할 수 있는 곳이 기업가 정신의 수도인 진주라는 것이다.

또한, 이건희 미술관 유치는 문화분권이자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첩경이며, 영호남 지역민이 쉽게 접근하고 함께 즐겨 활용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지난 26일 지역 출신 손병두 前 호암재단이사장과 재경 향우인사 등을 만나 미술관 유치 관련 현안과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고 재경향우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27일에는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만나 "이건희 미술관 유치는 문화분권을 통해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첩경으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수도이자 남남부권의 중심도시인 진주시에 이건희 미술관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구체적인 유치계획을 설명했다.

이에 민병찬 관장은"국립진주박물관의 경우 미술관으로서 최적의 입지를 가짐은 물론 경제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 장점이 많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한 조규일 시장은 박종달 기획운영단장을 만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의 진주시 유치를 피력하고 이건희 미술관 및 특별관 유치에 대한 시의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 35만 진주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조은정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초빙교수 겸 미술평론가 등 미술계 전문가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는 영·호남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서부경남 KTX 개통 시 미술관 관람 수요 권역이 넓어져 지리적 이점이 크다"며, "특히 진주성은 임진왜란 당시 국난 극복을 위해 영호남이 함께 힘을 합했던 성지"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의 국립진주박물관 시설과 이전 건립 예정인 국립진주박물관의 시설을 모두 활용하여'이건희 미술관'과 '이건희 특별관'으로 이원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현실적이고 경제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지역 시민사회와 문화예술인들의 이건희미술관 진주유치를 위한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 26일 오전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는 진주시이건희미술관유치 위원회, 진주문화원, 한국예총진주지회 관계자 50여 명이 최근 정부의 수도권 유치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와 관련해 "기회는 균등하고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는 선언과 함께"정부의 문화예술 시설의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헛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의 이건희미술관 유치를 위한 광폭행보와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유치 전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진주시와 의령군, 그리고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회원 도시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와 관련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향후 긴밀한 협조와 연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김영록 지사, "동학정신 본받아 정의로운 전남을"

27일 장성 황룡 동학농민혁명 승전 기념식 참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제127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혁명 승전 기념식에 참석해 "숭고한 동학정신을 본받아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더 새로운, 더 행복한 으뜸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앞으로 동학 영웅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억하는 기념식을 개최하고, 유적을 돌보고 유족에 대한 예우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자주적인 삶과 세상을 꿈꿨던 갑오년 선열의 뜨거운 열망이 국민의 가슴속에 전해오고 있다"며 "불의에 항거하고 외세의 침략에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났던 동학농민 혁명의 정신은 한말의병과 31운동, 518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동학 4대 전적지인 장성군과 장흥군에서 번갈아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안/기자

이재준 고양시장, 탄소중립 이행 정책토론회 참석

이재준 고양시장은 27일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등에서 주관한 '사회적 경제로 실현하는 지역 탄소중립 이행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했다.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제안하고, 기초지방정부, 사회적 경제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지역주체 간 역할과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기후평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에너지전환을 주도해야하므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아우르는 사회적 경제는 향후 탄소중립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 주체"라며 "지방·중앙 정부, 사회적 경제기업, 시민이 함께 지역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이사는 국제적인 탄소중립 정책 및 다양한 지역에너지전환·그린뉴딜 정책을 소개했다. 그리고 "지역 기후·에너지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주도,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역기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사례' 발표가 이어졌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100만 시민 참여 선언'낭독 및 퍼포먼스가 발제자, 토론자, 시민대표 등의 참여 하에 진행됐다.

참여 선언 낭독문에는 ▲가정의 탄소배출 억제와 에너지소비 감소 ▲RE100 캠페인에 능동적 참여 및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서비스 적극 이용 ▲재생에너지 생산자로서 탄소중립 확산에 주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영기/기자

경상북도 농촌 어린이 보육시설... 기업체 따뜻한 사랑나눔 이어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천만원 상당 어린이 간식, 도시락 등 제공

27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출연한 3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경상북도에 전달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전달하는 물품은 어린이 간식과 필통, 도시락, 면역강화 농수산물가공제품 등 8가지 종류로 구성된 꾸러미 세트로 경북도내 22개 농촌 어린이 보육시설에 전달하여 어린이들의 돌봄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원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관리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평소에도 취약계층의 무료급식과 식재료 꾸러미 전달, 방역물품 지원 및 의료봉사 활동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운 외식업체를 돕기 위한 영수증 이벤트 행사와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김재수 팀장)는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농촌을 돕고,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사랑 나눔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식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어린이 보육시설에 필요한 꾸러미를 전달해주신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농업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군민과 열린 소통 백산면 현장행정 추진

권익현 부안군수는 25일 군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한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백산면 원천리 애호박 재배농가 및 죽림리 상기마을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를 격려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방문에서 부안형 푸드플랜 참여희망 의사가 있는 애호박 재배농가를 찾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권익현 군수는 "희망이 있는 농업·농촌을 육성하기 위한 해결책은 항상 현장에 있고 농가와의 소통을 통해 찾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죽림리 상기마을을 방문해 나용성 백산면장으로부터 비포장 농로에 대한 현장설명을 청취했다.

권익현 군수는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영농소득 증대 및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경상남도 거창불교사암연합회, (재)거창군장학회에 장학금 3백만 원 기탁

거창불교사암연합회는 28일 거창군청을 방문해 (재)거창군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관내 송계사 반야스님, 포교당 해각스님, 소림사 정묵스님이 동행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담아 지역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정진하여 큰 뜻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부에 동참했다"고 기탁 동기를 밝혔다.

구인모 이사장은 "코로나19 종식과 지역을 위해 힘쓰고 있는 거창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반야스님과 회원분의 자비실천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지역의 학생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공부에 전념하여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거창불교사암연합회는 거창지역 10개 사찰의 연합체로 2010년에 설립됐으며, 각 사찰 주지스님 12명의 회원과 재가불자 3,500여 명의 준회원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특별성금 3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사회봉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광용/기자

허성무 창원시장, 불곡배수지 보수공사 현장점검

저수조 전면보수공사 시행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허성무 창원시장은 27일 오후 불곡배수지를 현장을 방문해 저수조 내부 보수공사 현장을 실시했다.

성산구 사파동 가음정공원 불곡배수지는 1만5000톤 용량의 배수지이며, 1992년부터 운영해 칠서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사파동, 신월동, 용호동 일대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이번 보수공사는 지난 2019년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사업비 6억5500만원으로 저수조 내부의 노후된 시설물을 전면 보수하며 보수 후에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허성무 시장은 "현재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서울특별시, 국내 유일 민요 전문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이 땅의 소리꾼 특별전

민요밴드 '아리수'가 현시대에 맞춰 편곡한 향토민요도 유튜브에서 감상 가능

서울특별시는 국내 유일 민요 전문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에서 각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민요 소리꾼 6인의 생애와 그들이 부른 17곡의 민요를 만날 수 있는 '이 땅의 소리꾼'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땅의 소리꾼' 특별전은 민요 소리꾼 6인의 인생 이야기와 그들의 삶의 일부였던 다양한 향토민요를 재조명한다. 전시의 주인공들은 1920~30년대 태어나 한 평생을 소리와 함께 살다 간 분들로 이번 전시에서는 그들이 살던 삶의 터전을 배경으로 한 육성 인터뷰 영상을 통해 향토민요의 현장을 느껴볼 수 있다.

전시는 각 지역별 대표 소리꾼 6인의 생애와 노래로 구성되었다. ▲충청북도 보은 '서정각' ▲전라남도 고흥 '정영엽' ▲강원도 화천 '신현규' ▲경상남도 고성 '천의생' ▲충청남도 태안 '강대성' ▲경상북도 칠곡 '우상림' 등이다.

충청북도 보은 '서정각' : 충청북도 보은군 풍취리 마릇들은 인근 지역에서 보기 드문 너른 들판으로, 멋진 농요가 전승되어온 배경이 되었다. 총명하고 목청 좋은 소년 '서정각'은 어른들의 총애를 받아 이 마을의 소리판을 이끄는 소리꾼으로 자라났다. 그의 선창으로 전개되는 '모찌는소리', '모심는소리', '논매는소리'를 들으면 노래 힘으로 일을 하던 민요의 현장을 느낄 수 있다.

전라남도 고흥 '정영엽' : 전라남도 고흥의 작은 섬 득량도에서 태어난 '정영엽'은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도우면서 민요를 배웠고, 마을을 대표하는 소리꾼이 되었다. 그녀에게 노래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말한다. 그녀가 부른 노래는 '화전놀이노래', '풀짐나르는소리', '맷돌질소리' 등 다양하다.

강원도 화천 '신현규' : 강원도 화천은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수시로 대규모 벌목을 하는 '산판'이 벌어져 임업노동요가 전승되는 배경이 되었다. '신현규'는 평생 산판을 누비며 일을 하면서 일꾼들을 이끄는 소리꾼 역할을 맡았다. 뛰어난 소리꾼 덕분에 산판 일꾼들은 힘들고 지루한 줄 몰랐다. 전시에서는 통나무를 끌어내리면서 하는 '운재소리'와 나무를 어깨로 운반하면서 하는 '목도소리'를 감상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고성 '천의생'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가 전승되는 곳이다. 고성농요는 모내기소리, 논매기소리, 칭칭이소리, 보리타작소리 등으로 구성된 경남의 대표적인 농요다. '천의생'은 경남 고성에서 농사를 지으며 뛰어난 소질과 열정으로 고성농요를 이끄는 주요 소리꾼이 되었다. 그가 소리를 메기는 '논매는소리'는 유장하고 구성지며, '보리타작소리'는 힘차고 빨라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충청남도 태안 '강대성' : 강대성의 고향인 황도는 안면도 옆의 작은 섬으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12호로 지정된 '붕기풍어제'가 전승되는 곳이다. '강대성'은 평생을 어부로 살면서 이 마을의 어로요를 전승해 온 주요 소리꾼으로 마을 풍어제를 주관하는 소리꾼으로도 활약했다. 강대성이 부른 '조기잡이소리'는 서해 일대를 망라하여 가장 뛰어난 걸작이라 할 수 있다.

경상북도 칠곡 '우상림' : '우상림'은 영남지역의 여성들이 부를 만한 노래란 노래는 모두 기억하여 부르는 보기 드문 소리꾼이다. 그녀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언제나 활달한 성격으로 이웃 여성들과 어울려 노래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녀가 부른 노래는 꿩노래, 꽃노래, 아이어르는소리, 시집살이노래 등 다양하고, 각종 전래동요도 많이 불렀다.

보통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르던 노래인 '향토민요'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이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노래가 되었다. 우리 조상들을 삶과 공동체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향토민요는 이 땅의 소리꾼들이 우리에게 남긴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번 전시는 향토민요의 전승 주체인 '소리꾼'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전시로 의미가 있다.

이 외에 이번 전시에서 들을 수 있는 향토민요 17곡 중에서 3곡을 퓨전민요그룹 '아리수'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다. 현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편곡된 향토민요 연주 영상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유튜브에서 감상하면 된다.

또한 서울우리소리박물관에서는 6월 10일 오후 4시,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유튜브 및 네이버TV를 통해 2021 우리소리 특별전 '이 땅의 소리꾼' 연계 행사(온라인)를 진행한다.

행사로는 퓨전민요그룹 아리수가 부르는 우리소리 공연(1부)과 서울우리소리박물관장이 직접 소개하는 우리소리 설명회(2부)가 진행된다.

한편, 지난 2019년 사라져가는 우리소리를 듣고 체험하는 국내 최초 향토민요 전문박물관으로 개관한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이번 특별전시와 관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우리소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상일 서울우리소리박물관장은 "이번 '이 땅의 소리꾼' 특별전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향토민요의 소박한 아름다움과 소리꾼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끼며, 우리소리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사라져가는 우리소리를 많은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유주/기자

울산중구문화의전당, '데이브레이크 콘서트' 올려

2021 중구문화의전당 문화의 달 기념 오는 29일 오후 5시 함월홀서

울산 중구문화의전당이 문화의 달을 기념해 국민밴드 '데이브레이크'의 콘서트를 무대에 올린다.

중구문화의전당은 오는 29일 오후 5시 2층 함월홀에서 언제나 압도적인 감동과 새로움이란 주제로 '데이브레이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데이브레이크는 '음악 안에서 자유롭다'를 모토로 POP을 기반으로 ROCK, JAZZ, LATIN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그들만의 스타일로 녹여내는 그룹이다.

데이브레이크 이전에 꾸준히 다른 음악활동을 해오며 탄탄한 실력을 키워온 이들은 자신들이 연주할 때 즐거운 음악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듣는 이들도 함께 즐거운 음악을 추구하고 있다.

2007년 데뷔앨범 'Urban Life Style'로 활동을 시작해 '팝콘', '좋다', '들었다 놨다'등의 대표곡을 통해 온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연이은 히트곡에 이어 2016년 발매한 정규 4집 'WITH'의 타이틀곡 '꽃길만 걷게 해줄게'로 전국에 꽃길 열풍을 몰고 왔으며, 2020년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에서 밴드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 밴드 신의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임을 증명했다.

또 데이브레이크는 완성도 높은 음악성과 연주력은 물론, 특유의 시원하고 청량한 사운드로 매년 페스티벌과 공연 섭외 1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경험으로 다져진 그들의 능숙한 퍼포먼스로 관객 호응도를 최상으로 이끄는 능력이 탁월하다.

특히, 데이브레이크를 대표하는 여름 브랜드 공연 'SUMMER MADNESS'는 2015년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그 규모를 확장, 매번 새로운 콘셉트와 독보적인 무대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강력한 티켓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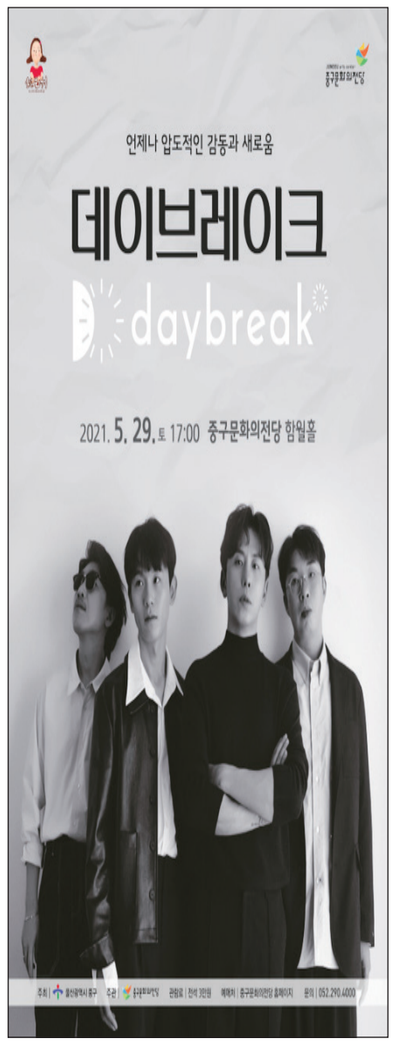
이번 콘서트에서는 '좋다', '들었다 놨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등 많은 곡들로 음악성과 대중성을 모두 사로잡은 데이브레이크의 공연을 약 90분간 즐길 수 있다.

대표곡 외에도 '킥킥', '넌 언제나', '모노트레인'등 평소 듣기 힘들었던 곡들을 준비함으로써 더욱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줄 계획이다.

공연 입장료는 전석 3만원으로 중구문화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구문화의전당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문화의전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운영, 철저한 시설방역, 객석 거리두기, 관객 발열체크 등으로 관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관객들도 마스크 착용과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등으로 보다 안전한 관람환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해남군, 마법숲으로 떠나는 상상 여행

열려라 마법숲 전시회 6월 1일부터 개최

해남군은 '열려라 마법숲'전시회를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남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 및 로비에서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숲을 소재로 이주은, 기미노 글렌다 스브렐린, 루이자 지아말루, 파트리지아 도나에라 작가의 현대 예술 작품과 동화 그림 5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회에 참여한 기미노 작가와 이주은 작가는 숲이 가진 따뜻함과 호기심, 그리고 잊혀져가고는 있지만 절대 버려질 수 없는 숲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국외작가로는 볼로냐 북페어 수상 작가인 글렌다 스브렐린과 루이자 지아말루 작가, 파트리지아 도나에라 작가의 동화 그림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회 기간 동안 나만의 마법숲 만들기 체험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운영하며, 작품 및 전시 해설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시회의 입장은 무료이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1년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개최된다.

군 관계자는"숲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을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힐링하고 즐거움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포항시, 해상공원에서 즐기는 도심 속 해양레포츠 체험 운영

28일부터 포항해양스포츠아카데미 홈페이지 신청 가능

포항시는 다가오는 6월 5일부터 3주간 주말에 송도 해상공원에서 '도심 속 해양레포츠 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 중 체험장소로 이용하는 해상공원은 도심 속에 자리잡은 해양문화 수변공원으로, 평소에는 음악분수 감상과 체력단련을 위해 가족단위로 방문하고 있으며 수시로 해양체험의 장소로도 활용하는 곳이다.

이번 해양레포츠 체험은 패달보트(4인승), 카약(2인승), 파워보트(11인승, 7인승) 등의 종목으로 구성했으며, 체험기간 주말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무료체험으로 운영한다. 참여대상은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회차별로 매시간 정각에 시작해 시간당 40여 명 참여 가능하다.

'해양레포츠 체험'의 참여 신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포항해양스포츠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해진 인원만큼 100% 사전 온라인접수로만 받을 예정으로 현장접수는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체험은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수기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된다.

더불어, 체험기간 중 동일장소에서 키마위크와 함께하는 만들기체험(미니요트, 요트세일 카드지갑, 파라코드 팔찌), 워터보드 공연, 포토인화존, 독도사진전도 마련돼 있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만들기체험은 유료체험과 무료체험으로 나눠져 있으며 '바다야놀자'앱 메인화면 '포항키마위크'에서 사전예약하면 참여할 수 있다.

조철호 해양산업과장은 "도심 속에서 즐기는 해양체험을 통해 해상공원이 해양레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포항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코로나블루를 치유하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해양레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세기/기자

부산건설안전시험사업소,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 획득

건설공사 품질시험기관으로 품질시스템과 시험능력 국제적 인정

부산시는 시험·검사 최고 인정 기관인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국제공인 시험기관 인정'이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시스템과 시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가 제도이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1964년에 부산직할시 도로사업소부설시험실로 개소된 이후 부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책임지고 공공기반시설 건설에 힘써왔다. 이번 국제공인 인정으로 건설안전시험사업소는 시험결과의 국제적 인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기관으로의 전문성 및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국내·외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에 가입한 104개국 102개의 인정기구에서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에, 남부권 최고의 글로벌 품질시험 수행을 통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 시 무역기술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감으로써, 내수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기업까지 폭넓은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시는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도로 함몰 등 돌발적 안전사고에 대비한 공공시설물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5월 말 공포)해 착공 단계에서부터 준공, 유지관리까지 품질관리 업무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종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이번 인정 획득을 통해 부산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능력이 국제적으로 검증되었다"며, "전문적이고 총체적인 건설공사 품질관리로 안전한 고품격 공공시설물을 구축해,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충남형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올담' 구축

28일 완료 보고회 개최…의견 수렴 거쳐 다음달 정식 개시

충남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완료 보고회를 열고, 다음달 중으로 도와 시군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서비스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을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필영 행정부지사와 안장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시군 데이터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용역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결과 보고, 시연,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용역사는 결과 보고를 통해 시스템 구성도와 인프라 구축, 원천데이터 확보 및 수집, 빅데이터 분석모델,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각 기능별 구축 결과를 시연했다.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 빅데이터 공모사업'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사업으로, 충남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역점 과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데이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도입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플랫폼 명칭은 자체 공모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올곧게 담는다는 의미와 한 올 한 올 가느다란 실이 모여 천이 되고 옷이 되듯이 데이터를 모아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은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으로 선정했다.

도는 올담을 통해 도·시군 행정 데이터, 국가 데이터, 고수요 민간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축적하고 도·시군 공무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해 분석 및 정책 개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구 동향, 대기·환경, 에너지, 지역경제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각종 정책 의사결정 및 과학적인 업무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올담에 탑재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현행화를 통해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뒤 플랫폼 서비스에 반영해 6월부터 도·시군에 우선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시스템 개선을 거쳐 민간에도 개방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올담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을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지속 발굴·개방하고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사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경북 전통시장 탐방하고(Go)! 온누리상품권도 받고(Go)!

도내 전통시장 홍보 및 전통시장으로의 재방문 유도

경상북도는 지난 25일부터 경북에 있는 211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방문하여 3만원 이상 소비한 방문객에게 온누리상품권 3만원을 되돌려주는 '고향사랑 전통시장 탐방 이벤트'를 시행한다. 도내 전통시장의 매력을 방문객에게 알리고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해당 이벤트는 '레츠고 경북여행'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한 후 도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인증사진과 함께 시장에서 구매한 3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인증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참여 인증이 완료되면 검수과정을 거쳐 3만원 온누리상품권을 매주 월요일 회원가입 시 입력한 주소로 순차적으로 발송을 한다. 위 이벤트는 5월 25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조건은 신청인의 주소지 이외의 시군에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인증한 경북지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가 후원하고,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주관하여 이루어졌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배성길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언택트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 온라인 쇼핑 등으로 전통시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조금이나마 활기차던 전통시장의 옛 모습이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휴대폰을 들고 경북 전통시장을 여행하면서 인증 사진을 찍고, 전통시장 맛집에서 음식을 먹고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전통시장만의 매력을 느껴보자.

김세기/기자

부산시, 2021년 제41차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 개최

부산시는 5월 28일 오후 3시 수영구 망미동 비콘그라운드에서 부산시가 주최하고 ㈜상지E&A/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허동윤 회장)가 주관하는 '제41차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린부산·도시건축포럼'은 2020년 11월 제40차 포럼과 마찬가지로 부산시 인터넷방송 '바다TV'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시민들은 실시간 댓글로 질문과 의견을 올리면서 소통할 수 있다.

올해는 '도시와 해양의 이중주'라는 대주제 아래 총 세 차례의 포럼이 개최된다. 그 첫 번째 순서인 이번 제41차 포럼에서는 동아대학교 성이용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지속 가능한 부산의 미래와 해상 신공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는다.

행사 진행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한국도시설계학회 부울경지부 김형보 회장의 영상 축사 ▲부산대학교 정헌영 교수의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공항 배후 지역의 전망'과 ㈜오션스페이스 정현 대표의 '지속 가능한 신개념 해상공항 건설' 강의 ▲동의대학교 박영강 명예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이한석 교수가 패널로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07년부터 시작된 열린부산·건축포럼은 '부산다운 건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의 아름다운 바다, 시민의 삶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돼야 하는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경향세종본부(가칭)'건립 업무협약 체결

경향신문 본사기능 대폭 세종 이전…세종 뉴스, 콘텐츠 생산 강화

충남도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완료 보고회를 열고, 다음달 중으로 도와 시군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서비스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을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필영 행정부지사와 안장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시군 데이터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 용역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결과 보고, 시연,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용역사는 결과 보고를 통해 시스템 구성도와 인프라 구축, 원천데이터 확보 및 수집, 빅데이터 분석모델,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축 등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각 기능별 구축 결과를 시연했다.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 빅데이터 공모사업'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사업으로, 충남형 디지털 뉴딜 사업의 역점 과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데이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도입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

플랫폼 명칭은 자체 공모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올곧게 담는다는 의미와 한 올 한 올 가느다란 실이 모여 천이 되고 옷이 되듯이 데이터를 모아 사회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은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으로 선정했다.

도는 올담을 통해 도·시군 행정 데이터, 국가 데이터, 고수요 민간 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축적하고 도·시군 공무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해 분석 및 정책 개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구 동향, 대기·환경, 에너지, 지역경제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각종 정책 의사결정 및 과학적인 업무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올담에 탑재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현행화를 통해 실시간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뒤 플랫폼 서비스에 반영해 6월부터 도·시군에 우선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시스템 개선을 거쳐 민간에도 개방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올담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을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며 "수요가 많은 데이터를 지속 발굴·개방하고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사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포도 수출 스타품목으로 발돋움!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

농림축산식품부는 포도의 품질향상 지원과 예냉 및 저장방법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20년도 포도 수출이 전년대비 34.7% 증가한 역대 최고인 31백만불을 달성했으며, 금년에도 4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49.5% 증가한 7,227천불을 수출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바비, 하이선)으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수출규격품 출하 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한 것이다.

이러한 수출 성과에는 농식품부와 포도수출통합조직(한국포도수출연합(주))의 광합성을 돕는 영양제 보급·지원, 품질향상 교육 확대 및 선과장의 품위관리준수 지도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식품부는 포도(샤인머스켓) 출하물량이 일시에 몰려 국내 가격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는 노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포도 수출 비중의 약 88.7%를 차지하는 샤인머스켓의 저장기간은 최대 3개월 정도이나, 수확 후 예냉처리와 저장방법 개선을 통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저장기간을 5개월까지 늘렸으며,이를 통해 주 수출시기(11월~익년 1월)보다 2개월이 더 연장된 3월까지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약 30% 이상의 높은 수출단가로 이어져 농가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마지막 장기저장 물량(3월, 800kg)은 베트남으로 수출되었으며, 현지에서 판매 당일 바로 완판이 될 정도로 소비자 반응이 좋았으며, 바이어측에선 여분의 물량이 있다면 추가 수입을 희망했다고 전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더불어 우리나라 샤인머스캣 최대 수출국에 해당한다. 높은 경제성장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향상되어 선물용으로 샤인머스켓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한류)도 소비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한국산 샤인머스캣이 프리미엄급으로 인식되어 BHG, 춘보 등 백화점·고급매장에서 1송이(500g)에 54,000원에 소비되는 등 수출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하락 등을 장기저장 기술과 수출 활성화를 통해 어느정도 해소할 것으로 판단하고,수출통합조직인 한국포도수출연합, 경북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장기저장기술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16년 5백만불에 불과했던 포도 수출이 '20년 3천만불까지 성장한 것에 힘입어 장기저장기술 보급·확대, 체크프라이스 도입, 엄격한 품질관리와 홍보마케팅 등을 통해 프리미엄 한국산 포도(샤인머스켓)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광수/기자

아름다운 제주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적극 관리에 나서

산림청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으로 보호구역 보전·관리 본격화

산림청은 제주의 9개소 1,201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주 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준비가 한창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주 산림생태관리센터는 곶자왈, 산림습원 등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의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준공되었다.

제주고사리삼, 금새우란, 밤일엽, 호랑가시나무 등 희귀식물 자생지뿐만 아니라, 내륙에서는 보기 어려운 상록활엽수가 분포하는 등 제주지역은 높은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유하여 그 보전가치가 매우 크다.

한편,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벌채 제한, 임산물 채취 금지 등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주요 거점 보호구역에는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생육환경 개선 및 불법행위 단속 등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제주 산림생태관리센터는 올 5월 말까지 산림생태관리원을 채용하여 생육환경개선사업, 조사·점검 등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인근 산림을 활용한 탐방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탐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올 연말까지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탐방로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치게 된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제주지역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에 공익가치를 환원함으로써 자발적 보호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광주광역시,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합동점검

6월7~30일, 자치구·렌터카조합과 공동 실시

광주광역시는 6월7일부터 30일까지 자치구,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60개의 렌터카 및 카셰어링 대어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미성년자 대여자격 확인 여부 ▲무등록 영업 ▲공유자동차(카셰어링) 예약소 및 영업소 현장점검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19의 방역 경각심 둔화와 여름 휴가철로 인한 렌터카 수요 증강 대비해 차량 소독 및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대여자 운전자격 검증이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부적격자에게 차량 불법 대여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미등록업체의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단속 실적 및 내용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자동차 대여사업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렌터카 대여 시 명의대여 및 알선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렌터카 사업자가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무면허자에게 대여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덕윤/기자

화성시, 배달음식점 3,846 곳에 지도점검 실시

식중독예방과 생활방역 등 위생관리 매뉴얼에 대해 집중점검

화성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배달앱에 등록된 관내 배달음식점 3,846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담당공무원 4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4명(2인1조)을 투입해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3,846개소에 대해 식중독예방과 생활방역 등 위생관리 매뉴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재료 보관기준 및 유통기한 준수 여부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이며 식중독예방 홍보도 진행 할 예정이다.

특히 조리장 내 위생해충 유입 가능 여부와 환풍·공조시설 청결상태, 칼,도마 구분 사용 및 이물혼입이 우려되는 조리기구 사용여부 등 위생취약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 및 안전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점검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위생관리 취약분야 조사를 통해 2~3차 재점검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1차 실태조사에서 위생관리 미흡업소 및 전통시장 주변 취약업소 등으로 선정되면 오는 9월 중 2차 재지도 및 점검을 받게 된다.

또한 2차 재지도 및 점검에서 개선사항이 조치되지 않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11월중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해 업체 전반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의지가 없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도 실시 할 예정이다.

곽매헌 위생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배달음식점의 위생 상태가 크게 개선되길 바란다"며 "배달음식의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배달음식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점검으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음식점 영업자의 자율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율 위생점검 매뉴얼은 '식품안전나라'누리집 공지사항과 화성시 홈페이지시정알림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남주/기자

안성시, 건설공사 중지 사업장 90개소 안전점검 완료

안성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관내 건설공사 중지 사업장 9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우기철을 앞두고 작업이 중단된 사업장 부지의 경사면과 배수로 등의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여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안성시 시민안전과 외 건축과, 산림녹지과 등 유관부서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토목공사 경사면 안정화 조치상태 및 배수로 기능 여부 등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피해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근로자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했다.

시는 점검결과 안전상태가 미흡으로 확인된 사업장 8개소에 대해 건축주 및 시공사에게 이를 통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건설공사가 중지된 사업장에서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높다"며 "공사가 중지된 현장에 대해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충청남도 태안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6월 19일 민어도 일대 실시

태안해양경찰서장는 올해 9월까지 매월 1회 실시하는 동력 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오는 6월 19일 토요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민어도 일대에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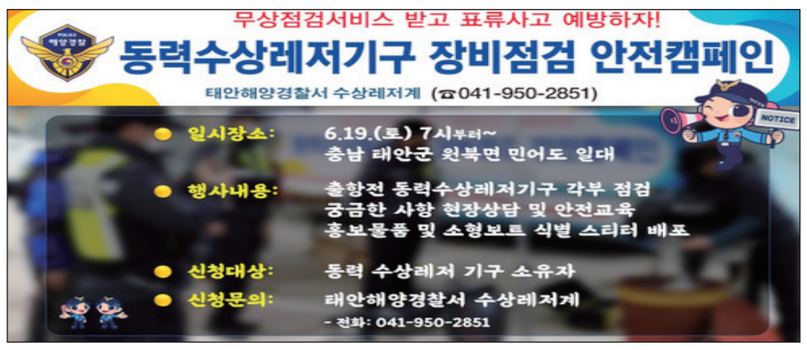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 실시되는 이번 동력 수상레저기구 무상검검 서비스는 베테랑 전문가가 현장에서 출항전 필수점검, 궁금해소 상담,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며, 소정의 홍보물품도 나눠 준다.

특히, 등록대상 아닌 소형 고무보트는 분실·도난 시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어 해양경찰 제작 식별 스티커도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 점검 서비스 희망 소유자는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에 사전 전화 예약 후, 고지 일자와 장소에서 무상검검을 받으면 된다.

태안해경 채규훈 수상레저계장은 "정비불량, 연료고갈 등 사전점검 소홀로 인한 표류사고가 가장 많다. 바다 한가운데서 기관이 멈춰 버리는 표류사고는 동력 상실로 전복될 위험은 물론, 다른 항해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2차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라며, "매월 진행하는 무상점검 서비스를 잘 활용해 평소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사고 없는 수상레저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계룡시, 부진사업 점검 보고회 개최… '신속집행' 고삐 바짝

주요사업 점검 및 신속집행 만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계룡시는 지난 25일부터 3일간 류재승 부시장 주재로 시정 주요 현안사업 및 신속집행 대상 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1년도 어느덧 중반기에 접어든 만큼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추진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제한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결과 ▲주요 현안 사업 중 계룡국민체육센터 건립,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 훈련장 건립, 동촌소하천정비공사 등의 사업 ▲신속집행 대상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선진지 견학 및 글로벌 역량강화, 중·고등학생 대상 해외역사 탐방 지원 사업 등 총 15개 부서 36건의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현안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류재승 부시장은 "주요 현안사업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소상공인이 어려운 만큼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원호/기자

익산시·기관, 불법 촬영 카메라 합동점검

익산시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진행한다.

시는 27일 남중동 다중이용시설과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여성친화도시 시민서포터즈단·경찰서와 함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서포터즈단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대형마트 등 화장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에서 보유 중인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한다.

또한 불법촬영이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 경고스티커를 부착한다.

지난 2·3월 백제단길 상가 29곳 화장실 등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등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혼자 사는 여성, 지역 사업체, 음식점 등에 단속 탐지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어 시민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합동점검·대여 서비스 등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여성안전지킴 액세서리 보급(호신용경보기), 무인보관함 운영 등 여성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의 밤길 안전을 위해 여성안전피난처 안심 비상벨을 12곳 확대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선수/기자

충북도"치킨 배달음식점"위생점검 실시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치킨 배달음식점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10일간이다.

점검대상은 도내 치킨 배달음식점 중 면적이 33㎡이하 업소 중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점검이력이 없는 33곳과 종사자 5인 미만 업소 중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소가 해당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여부 ▲지하수 사용업체에 대한 검사여부, 부적합 물 사용 행위 ▲무신고 용기·포장(포장지 등) 사용여부 등이다.

또한 위생 점검 시 치킨 배달용 용기·포장지에 대한 수거 검사도 실시하여 식품에 직접 접촉시 납, 총용출량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지에 대한 재질별 규격 검사도 진행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1인가구 증가로 시민들의 식생활에 배달음식이 중요해진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에 대한 요구가 크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배달음식점 영업자의 위생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언더커버' 지진희X김현주X정만식X한고은 한자리에?! 위험한 만남 예고

'언더커버' 김현주가 한고은과 은밀한 만남에 나선다.

JTBC 금토드라마 '언더커버'(연출 송현욱, 극본 송자훈·백철현, 제작 (주)스토리티비·JTBC스튜디오) 측은 11회 방송을 앞둔 28일 한정현(지진희 분), 최연수(김현주 분)부터 도영걸(정만식 분), 고윤주(한고은 분)까지 출격한 숨 막히는 현장을 공개했다. 지독하게 얽히고설킨 네 사람의 위험한 만남이 어떤 파란을 가져올지 긴장감을 높인다.

지난 방송에서 과거 이석규(=한정현/연우진 분)의 목소리는 한정현, 최연수 부부를 위기와 혼란에 빠뜨렸다. 도영걸이 자신의 실체를 폭로하는 한정현의 녹취 파일을 바꿔치기한 것. 옛 안기부 요원 이석규가 김태열(김영대 분)의 출몰을 보고하는 통화 내용은 최연수에게 충격을 안기며 예측 불가의 전개를 예고했다.

그런 가운데 최연수가 고윤주와 접선을 시도한다. 앞서 고윤주는 김태열의 죽음을 목격했다는 제보 메일을 최연수에게 보냈다. 이에 오래전 '그날'의 이야기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은 혼돈 그 자체다. 최연수와 고윤주의 약속 장소에 예상 밖의 인물들도 포착된 것. 얼굴을 가린 한정현은 이들의 동태를 날카롭게 감시하고 있고, 최연수를 미행하는 도영걸의 모습은 긴장감을 더한다.

최연수가 진실을 파헤칠수록 깊숙이 묻어둔 '이석규'의 존재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 한정현은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극한의 위기를 돌파해 왔다. 하지만 최연수의 의심이 시작된 만큼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과연 고윤주가 기억하는 과거의 비밀은 무엇이고 최연수에게 모든 진실을 전할 수 있을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이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늘(28일) 방송되는 11회에서는 김태열 사건의 진범을 알려주겠다며 고윤주가 최연수에게 만남을 제의한다. '언더커버' 제작진은 "최연수에게 진실을 밝히려는 고윤주와 이를 막으려는 도영걸, 그리고 이들을 감시하는 한정현의 보이지 않은 싸움이 시작된다. 흥미진진하고 긴박한 전개가 손에 땀을 쥐게 할 것"이라며 "김태열 죽음의 충격적 반전과 비밀도 기다리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언더커버' 11회는 오늘(28일) 밤 11시 JTBC에서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보이스4' 송승헌-이하나, 강력 공조 플레이 영상 공개 "지금껏 본 적 없는 끔찍한 괴물"

tvN '보이스4' 초청력 살인마를 막기 위한 송승헌과 이하나의 골든타임 사수 작전이 담긴 티저 영상이 공개돼 기대감을 치솟게 한다.

시즌4로 레전드의 귀환을 알린 tvN 금토드라마 '보이스4: 심판의 시간'(연출 신용휘/극본 마진원/제작 스튜디오드래곤, 보이스 프로덕션/14부작) 측이 28일(금) 송승헌(데릭 조 역)과 이하나(강권주 역)의 강력한 공조 플레이를 예고한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네번째 코드 제로 사건 발생과 함께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송승헌의 원칙주의와 생명의 소리를 듣는 이하나의 귀가 합쳐지는 순간 펼쳐질 공조 수사에 기대감이 절로 폭발한다.

(네이버TV URL: https://tv.naver.com/v/20436405)

공개된 티저 영상은 까만 우비를 입고 흩날리는 눈발 속에서 다크한 포스를 뿜어내는 초청력 살인마로 포문을 연다. 이후 "조건이 있어. 오늘부터 나와 공조하는 조건"이라는 제안과 함께 첫만남부터 으르렁 케미를 발산하는 형사 송승헌과 보이스 프로파일러 이하나의 신경전과 초청력 빌런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 공조가 임팩트있게 담겨 눈길을 끈다.

그 중에서도 시선을 사로잡는 건 이하나가 받은 살인 예고장. 이하나는 발신인 서커스맨으로부터 "당신과 나는 샴쌍둥이에요"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게 된 것. 여기에는 누군가를 살인할 거라는 메시지가 적혀있어 살인 예고장의 정체는 무엇일지 숨이 턱 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낸다.

이후 벌어진 의문의 살인 사건과 알전구로 온 몸이 포박된 시체가 궁금증을 높이는 가운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차가운 머리와 예리한 분석력으로 살인마를 쫓는 송승헌의 집념의 눈빛, 피해자의 사소한 소리까지 놓치지 않는 이하나의 청력은 한층 더 악랄해진 범죄와 악에 맞선 활약에 기대를 더한다.

뿐만 아니라 초청력 살인마의 수수께끼에 직면한 듯 혼란에 빠진 송승헌의 눈빛과 "지금껏 우리가 본 적 없는 끔찍한 괴물이란 겁니다"라는 이하나의 엔딩 멘트에서 앞으로 휘몰아칠 폭풍전야를 예고한다. 이에 송승헌과 이하나가 역대급 능력치를 자랑하는 초청력 살인마를 어떻게 막을지, 새롭게 시너지를 낼 두 사람의 골든타임 공조에 궁금증이 더해진다.

tvN '보이스4' 제작진은 "극중 송승헌과 이하나는 각자의 범상치 않은 능력과 성격만큼 개성이 뚜렷한 극과 극 캐릭터"라고 운을 뗀 뒤 "이런 두 사람이 공조해 역대급 능력치를 자랑하는 초청력 살인마를 추격하고 소탕하는 과정이 오는 6월 18일 안방극장에 심장 쫄깃한 긴장감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을 동시에 선사할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한편 범죄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112 신고센터 대원들의 치열한 기록을 그린 소리 추격 스릴러를 그린 tvN 금토드라마 '보이스4'는 오는 6월 18일 금요일 밤 10시 50분 tvN을 통해 첫 방송된다. 이후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0시 50분에 방송된다.

최재은/기자

'대화의 희열3' 유희열 '무한 오은영교' 외치게 한 '육아 대통령' 클래스

'대화의 희열3' 오은영 박사가 '육아 대통령'의 클래스를 보여줬다.

지난 5월 27일 방송된 KBS 2TV '대화의 희열3'(연출 신수정)에서는 전국의 부모들을 열광하게 하는 주인공 '육아 대통령' 오은영 박사가 출연해,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펼쳤다. '아이들의 언어 통역사'이자 '어른이들의 멘토'라 불리는 오은영 박사는 육아 상담은 물론, 지친 어른이들을 위한 힐링 상담을 펼치며 모두를 집중하게 만들었다.

먼저, '육아 상담가'로 잘 알려진 오은영 박사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자신의 전공과 직업을 밝히며 눈길을 끌었다. 오은영 박사는 "흔히 말하는 정신과 의사이고, 소아청소년 정신과를 한 번 더 전공했다. 0세부터 100세까지 전 연령 상담 가능하다"고 말했다. 외상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와의 인연도 주목을 받았다. "이국종 선생이 제자다. 그런데 비슷한 나이로 보더라"라며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안겼다.

'육아 대통령'의 어린 시절은 반전 탄생 스토리로 관심을 모았다. 오은영 박사는 8개월 이른둥이, 1900g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오은영 박사는 "밤새 울고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었다. 저도 키우기 어려운 아이였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잘 클 수 있던 이유는 칭찬과 존중을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 덕분이라고. 오은영 박사는 "제가 "말대꾸를 해도 '네 말이 맞다'고 먼저 제 정당성을 인정해 주셨다"고 말해, '그 부모님에 그 딸'이 나오게 된 '육아DNA'를 짐작하게 했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 '공부'에 대한 대화는 뜨겁게 불타올랐다. 특히 오은영 박사는 MC들에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점수와 졸음과 싸워가며 공부했던 경험 중 어떤 것을 기억하냐고 물으며, "우리는 점수를 기억하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해 본 기억과 경험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해봤다는 게 중요한 거다. 그 경험을 가지고 야근도 하고, 아이 낳다가 힘들어도 끝까지 낳고, 과일을 팔 때도 반짝반짝 닦아서 판다"고 강조하며, 공부의 이유를 말했다.

또 그는 "공부하기 싫다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것 같다. '틀려도 괜찮다. 네 나이에 학년에 맞는 흐름만 따라가자'라고 말이다. 공부를 싫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아이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며, 아이의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해줄 것을 강조했다. 딸이 있는 학부모 유희열은 깊은 깨달음을 얻는 모습으로 웃음을 안겼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육아 멘토' 오은영과의 만남에 유희열은 사춘기 딸을 둔 아빠의 '찐 고민 상담'을 털어놔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유희열은 "한 때 딸의 휴대폰 속에 가족 사진이 많았는데, 1-2년 전부터 사라졌다. 어제의 딸과 매일 작별하는 느낌이라 너무 슬프다"라고 말했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사춘기 거리두기는 자녀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부모의 비중이 줄면서 그 자리에 또래 친구들, 선생님, 연예인 등이 들어선다.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며 발달해 나가는 거다"라고 조언했다.

이날 오은영 박사는 '육아 대통령'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오은영이 내놓는 해답에 유희열은 "순간 헌금 낼 뻔했다"라고 '무한 오은영교'에 빠져 웃음을 안기기도. 또 불면증, 미루기 습관 등 고민을 털어놨던 김중혁, 신지혜, 이승국도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에 위로와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보였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해답을 내놓는 오은영 박사와의 대화가 '힐링의 밤'을 선사했다는 반응이다.

그런가 하면, 대장암으로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오은영 박사는 2008년 건강검진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받았다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수술을 앞둔 당일에도 의사로서 진료를 했다는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가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다음 방송에서도 오은영 박사와의 대화가 이어진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기도 한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 코로나19 시대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계속될 예정으로 관심을 높인다. KBS 2TV '대화의 희열3'은 매주 목요일 밤 10시 40분 방송된다.

최만식/기자

헤이즈, 매혹+시크 넘나드는 웹 화보 공개

가수 헤이즈의 감성 짙은 분위기를 담아낸 화보가 공개돼 화제다.

남성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에스콰이어'는 28일, 헤이즈와 함께한 웹 화보를 공개했다. 최근 '헤픈 우연(HAPPEN)'으로 화려하게 컴백한 헤이즈는 스포츠 컬처 브랜드 엔에프엘(NFL)의 2021 S/S 컬렉션을 완벽히 소화하며 화보 장인의 면모를 뽐냈다.

화보 속 헤이즈는 넥 라인의 로고 플레이가 돋보이는 엔에프엘(NFL) 우먼스 클럽 세미 크롭 오렌지 티셔츠와 블랙 바이커 쇼츠를 함께 매칭해 캐주얼 스타일을 완성했다.

또 다른 화보 컷에서는 일상생활에 입기 편한 타이트한 실루엣의 엔에프엘(NFL) 우먼 하프넥 숏 슬리브 블랙 티셔츠를 화이트 원피스와 매치해, 페미닌하면서도 시크한 스타일을 연출하며 앞선 화보와는 180도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헤이즈의 완벽한 컨셉 소화력에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도 '역시 분위기 장인'이라고 입을 모으며 감탄을 했다는 후문이다.

현유주/기자

'알고있지만' 알고있지만, 눈부신 비주얼! '유나비'로 완벽 동기화, 한소희 첫 스틸 공개

'알고있지만,' 한소희가 '단짠맵' 현실 연애로 시청자들의 공감과 설렘을 접수한다.

오는 6월 19일 방송 예정인 JTBC 새 토요스페셜 '알고있지만,'(연출 김가람, 극본 정원, 제작 비욘드제이·스튜디오N·JTBC스튜디오/원작 네이버웹툰 〈알고있지만〉(작가 정서)) 측은 28일, '하이퍼리얼'을 입은 미대생 '유나비'로 완벽 동기화한 한소희의 스틸컷을 공개했다. '웹툰'을 찢고 나온 눈부신 비주얼 역시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 올린다.

동명의 인기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알고있지만,'은 사랑은 못 믿어도 연애는 하고 싶은 여자 유나비(한소희 분)와 연애는 성가셔도 썸은 타고 싶은 남자 박재언(송강 분)의 하이퍼리얼 로맨스를 그린다. 지나치게 달콤하고 아찔하게 섹시한, 나쁜 줄 알면서도 빠지고 싶은 스물두 살 청춘들의 발칙한 현실 연애가 리얼하게 그려진다. 무엇보다, 두 청춘 배우가 보여줄 극강의 케미스트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달달한 로맨스는 물론 눈물 나게 시린 '매운맛' 연애까지 있는 그대로 풀어내며 시청자들의 과몰입을 자아낼 전망.

자신만의 색이 강렬한 독보적인 분위기와 탄탄한 연기로 매 작품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한소희. 그의 새로운 변신에 쏟아지는 기대감 역시 뜨겁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 속, 평범하고 소탈한 현실 미대생으로 완벽 빙의한 한소희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진지한 얼굴로 작품에 몰두 중인 모습에선 '작업실 귀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소과 에이스다운 면모가 엿보인다. 친구들과의 한바탕 수다에 해맑은 웃음을 지어 보이는 환한 얼굴에서는 스물두 살의 풋풋함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꿈도 많고 다부진 청춘 유나비지만, 내면에는 남모를 트라우마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관계에 대한

비밀과 갈등이 존재한다. 유나비의 달고도 씁쓸한 연애사를 세밀하게 풀어낼 한소희의 진가가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소희는 사랑은 못 믿어도 연애는 하고 싶은 여자 '유나비'를 맡았다. 첫 연애의 허무한 실패로 운명 같은 사랑은 믿지 않겠다고 다짐한 유나비. 그러나 나비 문신을 가진 남자, 박재언에게 순식간에 빠져들며 생애 첫 일탈을 시작한다. 한소희는 "평소 좋아하던 웹툰이라 드라마화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배역 중 하나였다. 출연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작품 선택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나비는 현실적인 인물이다. 드라마 제목처럼, 누구나 알고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속 깊은 감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 매력이다"라며 캐릭터를 향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JTBC 새 토요스페셜 '알고있지만,'은 10부작으로 주 1회 편성을 확정 지었다. 오는 6월 19일(토) 밤 11시 첫 방송 된다.

전순희/기자

[현장에서] 자이언트 킬링은 쉬운 게 아니야

K3리그 양주시민축구단이 FA컵 '디펜딩 챔피언'이자 K리그1의 강호인 전북현대를 꺾었다. 박성배 감독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감격해 마지않았다.

박성배 감독이 이끄는 양주는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1 하나은행 FA CUP 16강전에서 전북과 연장전까지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10-9로 승리했다. '자이언트 킬링'이다.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쉽지 않은 경기였다. 경기 시간 동안 전주성을 비추던 블러드문(개기월식 때 달이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달)은 과거 흉조로 여겨지던 자연 현상이지만 이날의 양주에만큼은 확실한 길조였다.

같은 시각 다른 K3리그 팀들도 프로팀과 맞대결을 펼쳤으나 8강 진출을 이뤄낸 것은 양주뿐이었다. 김해시청은 대구FC에 정규시간 0-2로 패했고, 부산교통공사는 전남드래곤즈와 연장전까지 2-2 접전을 펼쳤으나 승부차기에서 석패했다. 8강에 오른 유일한 비-프로팀이 된 양주는 세 팀 중 현재 K3리그에서의 순위가 가장 낮다.

양주는 올해 K3리그에서 현재 3승 2무 4패로 15개 팀 중 12위에 자리해있다. 최근 경기인 지난 22일 경기에서는 청주FC에 0-6 대패를 당하기도 했다. 이런 양주가 지난해 FA컵과 K리그1을 모두 석권한 전북을 꺾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전북은 최근 리그 3연패로 부침을 겪는 중이나 양주와 비교할 때 객관적 전력이 매우 앞선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김상식 전북 감독은 경기 전 "양주는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실상은 그 이상이었다. 양주는 경기 초반부터 김여호수아와 이종한을 앞세운 적극적인 공격으로 기동력을 뽐냈다. 다소 당황한 듯 보이던 전북은 차츰 전열을 가다듬고 골 사냥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양주의 파이팅 넘치는 수비에 고전했다. 전반 16분 백승호의 프리킥, 전반 37분 구스타보의 헤더는 골키퍼 박청효에게 막혔고, 전반 38분 김승대의 슈팅은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

양주는 후반전에도 전북의 공격을 속속 막아냈다. 전북은 수차례 세트플레이로 골 기회를 잡았으나 양주의 악착같은 수비에 막혀 정확성을 놓치고 힘을 잃었다. 양주는 후반 추가시간 쿠니모토의 슈팅까지 박청효의 선방으로 막아낸 뒤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야 그라운드 위로 쓰러졌다.

연장전에 돌입했을 때, 양주는 너나할 것 없이 매우 지친 모습이었다. 아웃 오브 플레이 상황마다 손을 무릎에 짚고 크게 숨을 골랐다. 박성배 감독은 선수 교체를 통해 조직력을 유지하고자 했고, 선수들은 남은 힘을 짜내 집중력을 발휘했다. 결국 연장전 30분마저 방어해낸 양주는 또 한 번 그라운드 위로 쓰러졌다.

수훈갑은 단연 골키퍼 박청효였다. 경기 중에도 안정적인 캐칭과 결정적인 선방으로 양주를 위기로부터 구했던 박청효는 승부차기에서도 맹활약했다. 실축과 선방, 파넨카킥과 파넨카킥이 맞부딪치며 길게 이어지던 승부차기에서 침착하게 상대의 킥 방향을 읽어냈다. 그리고 11번 키커로 직접 나서 킥을 성공시킨 뒤, 이어진 전북 골키퍼 이범영의 킥을 팔을 위로 쭉 뻗어 쳐냈다. '디펜딩 챔피언'을 무너뜨린 선방이었다.

경기 후 박청효는 "선수들이 잘 뛰어주고 버텨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나는 한 게 없다"며 겸손해했다. 비교적 젊은 선수들이 많은 양주에서 베테랑격인 31세 박청효는 "전북전을 준비하면서 선수들과 이기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즐기자고 했다. 전북 같은 강팀과 경기할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 없이 많이 즐기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청효는 2013년 경남FC를 통해 프로에 데뷔했으나 K리그에서는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2016년 강릉시청(현 강릉시민축구단) 소속으로 내셔널리그(현 K3리그와 통합) 시즌 MVP를 수상할 만큼 인정받는 골키퍼이기도 하다.

포천시민축구단을 거쳐 올해부터 양주와 함께 하고 있는 박청효는 지난 3라운드에서 전 소속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16강에 진출했다. 무엇보다 16강에 진출해 K리그1 강호인 전북과 맞붙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는 "K3리그는 K리그1보다 아래인 리그지만, 선수들이 K리그1 팀과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 그만큼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더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박성배 감독 역시 "전북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팀이고 K리그를 상징하는 팀이다. 그런 팀과 경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수들에게 큰 동기부여다. 이런 큰 경기장에서 FA컵이라는 큰 대회를 치르는 것도 처음 경험하는 선수들이 많다. 그런 것들이 선수들을 경기장에서 춤추게 했다"며 양주가 이번 경기에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었던 비결을 전했다.

승리 소감을 묻자 박성배 감독은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북은 박성배 감독의 첫 프로팀이기 때문이다. 박성배 감독은 1998년 프로에 데뷔해 6년간 전북에 몸담았다. 그는 "고향 같은 팀에 와서 경기를 한 것이라 승패를 떠나 만감이 교차한다. 미안한 마음도 크다"며 입을 뗐다.

박성배 감독은 "한 마디로 처절한 경기였다. 4개월 동안 만들어진 팀이다. 그냥 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수들과 코칭스태프간의 교감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 결과는 있을 수 없었다. 모두를 칭찬하고 싶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양주 감독으로 부임해 짧은 시간 동안 팀의 변화를 이끌어온 그다.

말 그대로 거인을 무찌르고 '자이언트 킬링'의 주인공이 된 것에 대해 박성배 감독은 "자이언트 킬링은 말처럼 쉽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큰 성취감을 드러냈다. 그는 "물론 운도 따랐고, 무엇보다 선수들의 의지가 정말 강했다. 훈련 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선수들이 발로 뛰며 확인시켜줬다. 그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선수들을 칭찬했다.

박성배 감독은 먼저 청주전 0-6 대패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나와 선수들 모두 일생에 한 번 나올까말까 한 결과가 나와서 사실 굉장히 다운됐었다"면서 "이번 전북전은 즐기러 온다는 마음으로 왔지만 초반 실점을 잘 막는다면 연장전, 승부차기까지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연습의 결과"라고 밝혔다.

전북전 승리는 양주에 자신감을 되찾아줬다. 되찾은 것으로 모자라 더 얻었다. 박성배 감독은 "선수들의 체력이 고갈된 상태라 로테이션을 통해 다음 리그를 준비할 것이다. 선수층이 얇은 상황이지만 이번 기회로 자신감을 얻었다. 큰 경기를 잘 치러낸 것이 큰 발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KLPGA, '제13대 KLPGA 홍보모델'의 색다른 매력이 담긴 화보 사진 전격 공개

'골프와 함께하는 KLPGA 스타', '킹스 우먼(King's Women)', 'KLPGA 스타 12人 12色' 총 3가지 콘셉트로 촬영

5월 27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2021년 제13대 KLPGA 홍보모델'의 화보 촬영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KLPGA 홍보모델'은 지난 2월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 역대 최다인 1만 1천여표의 투표수를 기록하며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겁게 진행됐다. 박현경, 안나린, 유해란, 이소미, 이소영, 임희정, 장하나, 조아연, 최혜진, 한진선, 현세린, 그리고 KLPGA 공식 캐릭터 케이까지 총 12명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지난 4월 KLPGA는 '제13대 KLPGA 홍보모델'을 대상으로 스튜디오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화보 촬영은 총 세 가지 콘셉트로 진행됐다. 골프웨어를 입고 프로페셔널한 면모와 스포티한 모습을 강조한 '언제나 골프와 함께하는 KLPGA 스타' 콘셉트, 무게감있는 클래식한 정장을 통해 KLPGA 스타의 권위를 보여준 '킹스 우먼(King's Women) 콘셉트, 그리고 각각의 개성을 포인트 컬러의 의상으로 표현해 선수들의 발랄한 모습을 부각한 'KLPGA 스타 12人 12色' 콘셉트로 촬영됐다. 골프웨어가 아닌 의상으로 카메라 앞에 선 선수들은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며 골프팬들에게 새로운 이미지로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KLPGA는 지금까지 홍보모델 화보 촬영 사진을 활용하여 KLPGA 월페이퍼, 캘린더, 연하장, 이모티콘 등 다양한 제작물을 선보여 왔다.

지난해 큰 인기를 얻은 '홍보모델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올해 역시 제작 및 배포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팬들이 원하는 이모티콘을 제작하기 위해 '팬과 함께 만드는 KLPGA 홍보모델 이모티콘 콘셉트 공개 모집' 이벤트가 진행된다. 오는 5월 31일(월)부터 6월 6일(일)까지 KLPGA SNS에서 진행될 본 이벤트를 통해 KLPGA는 골프 팬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예정이다.

한편, 오는 28일(금)부터 2021시즌 KLPGA투어의 일곱 번째 대회인 '제9회 E1 채리티 오픈'이 사흘간 펼쳐진다.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화보 촬영에 임한 KLPGA 홍보모델들이 이번 대회에서 선전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대회를 즐길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KLPGA 제13대 홍보모델 명단(가나다순)]

박현경, 안나린, 유해란, 이소미, 이소영, 임희정, 장하나, 조아연, 최혜진, 한진선, 현세린, 케이(총 12명)

최만식/기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우리가 응원합니다.

선수, 시민들 염원담은 체전응원메시지 쇄도에 체전개최 기대상승

경상북도는 올해 구미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들과 선수들이 보내주는 관심과 응원에 힘이 난다고 밝혔다.

지난달(4월) 펼친 이벤트에서 시민들의 100여 건에 달하는 응원 메시지를 받았고, 5월부터 시작한 릴레이 응원 메시지를 통해 유명 선수들과 유명인의 격려가 있어서다.

릴레이 응원 메시지는 5월 3일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조직위 부위원장)를 시작으로 조정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박현수(26. 경북도청), 아나운서 출신 여행작가 손미나, 미스트롯2에 참가하여 국민투표 1위를 한 바 있는 전유진, 2019년 전국 체육대회 MVP 김서영(27. 경북도청)등 많은 선수와 유명인들이 국민과 선수를 응원하는 메시지 전달에 동참했고 10월까지 이어진다.

특히, 박현수 선수(경북도청)는 "국민이 건강과 웃음을 되찾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개인적으로 많은 준비를 한 대회에 경북대표로 뛰게 되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상원 전국체전기획단장은 "코로나로 순연되어 개최되는 체전인 만큼 모두가 안전하고, 일상에 지친 국민들에게 힘이 되며, 참가 선수가 갈고닦은 실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대회로 준비하는데 마음의 부담도 있지만 많은 관심과 응원에 어느 때보다도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8일부터 7일간 구미(주 개최지) 등 12개 시·군 71개 경기장에서 47개 종목이 펼쳐지고,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20일부터 6일간 12개 시·군 37개 경기장에서 30개 종목으로 개최된다.

김세기/기자

평택진위FCU18, 무실점 전승으로 금석배 우승

경기평택진위FCU18이 2021 금석배 전국고등학생축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평택진위는 27일 오전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금석배 결승전에서 서울경신고에 3-0 승리를 거두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천안제일고에서 평택진위고로 전학한 선수들을 모아 지난해 말 창단한 신생팀인 평택진위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경신고를 상대로 내용과 결과 면에서 모두 앞서며 완벽한 승리를 가져갔다.

평택진위는 이번 대회 내내 파죽지세였다. 예선 3경기에서 14득점 무실점을 기록하며 3승으로 본선에 올랐고, 16강전에서 전남목포공고를 8-0으로 대파했다. 경기의정부광동U18과의 8강전, 대전유성생명과학고와의 준결승전은 3-0 승리였다. 결승전마저 3-0 완승을 거둔 평택진위는 이번 대회 무실점을 기록했다.

경기 초반부터 경신고를 거세게 몰아붙인 평택진위는 전반 9분 만에 골을 기록했다. 공격 지역에서 패스플레이를 이어가다 공을 받은 장윤식이 페널티에어리어 오른쪽으로 드리블한 후 호쾌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4분 후 평택진위는 또 한 번 득점에 성공했다. 장윤식이 페널티에어리어 왼쪽에서 슛한 공은 경신고 골키퍼 임진섭에게 막혔지만 오른쪽에 있는 강우승이 재빨리 밀어 넣었다. 경신고는 세트플레이를 통해 만회의 기회를 잡기도 했으나 무위에 그쳤고, 평택진위는 전반 31분 배준호의 중거리슛이 골로 연결되며 또 한 번 달아났다.

전반전 막바지 평택진위 공격수 전용준이 부상으로 아웃됐고, 이어진 후반전은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섰다. 경신고가 때때로 세트플레이 기회를 잡기는 했으나 평택진위가 줄곧 볼 소유권을 갖고 경기를 주도하며 추가골을 노렸다. 경신고 골키퍼 임진섭의 분투 속에 더 이상의 골은 터지지 않았고, 경기는 평택진위의 3-0 승리로 마무리됐다.

최재은/기자

KFA, 여자축구 참여확대 슬로건 디자인 공모전 결과 발표

대한축구협회는 여자축구 참여 확대 슬로건 디자인 공모전 결과, 축구팬 정석원 씨가 제출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협회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은 슬로건 Let's Play!를 심플한 글자 디자인으로 재미있고 친근하게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축구 골대가 Play를 감싸고 있는 모습, 축구 스타킹과 공으로 느낌표를 표현한 독창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선작을 제출한 정석원 씨에게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명의의 상장과 여자축구대표팀 후원사인 신세계백화점 200만원 상품권, 대표팀 트레이닝 킷 풀세트가 부상으로 증정된다. 가작으로 선정된 2명(박진영, 임호균)에게도 상장과 대표팀 레플리카를 선물로 지급할 예정이다.

여자축구 참여 확대 슬로건과 디자인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5월초까지 대한축구협회 SNS 등을 통해 실시됐다. 3월에 개최한 슬로건 공모전에는 628개의 작품이 제출돼 Let's play!가 채택됐으며, 이 슬로건을 소재로 지난 5월 5일까지 실시된 디자인 공모전에도 총 59개의 디자인이 출품돼 경쟁을 벌였다.

슬로건 디자인 당선작은 향후 여자대표팀 경기와 WK리그를 포함한 국내 여자대회 경기장 안팎의 플래카드, 전광판, 대회 팸플릿 등에 활용된다. 또 KFA 주최 각종 행사와 SNS를 통해서도 집중 노출될 예정이다.

현유주/기자

FAIR TRADE
공정무역

FAIR TRADE TOWNS KOREA

광명시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

공정무역 도시 선언 후
11개월간 공정한 소비 앞장

공정무역제품 판매점
목표치 3배 넘는 36개 확보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및
공정무역 **인식 확산**

공정무역가게 협의체 구성,
공정무역오픈박스 프로그램 운영 등

광명시는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경제적 불평등,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